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

비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세요

~칭하이 무상사

육식이 지구 온난화의
주된 요인이다

~유엔 보고서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96호



우리 행성에 사랑의 기운을 퍼뜨리자

칭하이 무상사/ 1994. 1. 1. 태국 방콕

(원문 중국어, 영어) DVD No. 400

오늘 저녁 한 기자가 나에게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진정한 목적은 오직 하나,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나 사람을 돕는 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이 죽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그들이 죽는다 해도 그건 그리 대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행자들, 또는 불교 신자들은 윤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없어지면 다른 육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세상에 사랑과 상호 간의 관심, 무조건적인 희생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에너지를 영적인 방식으로 높이고 우리 행성에 사랑의 분위기를 퍼뜨리고 싶기 때문이지요. 이웃 간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


이 자선의 진정한 목적이자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국의 존재들이나 외계인들이 우리 행성의 사랑의 기운에 이끌려 옵니다. 그들은 사랑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압니다. 어떤 행성은 기술 면에서는 고도로 발전했지만 이런 감정, 서로에게 존재하는 이런 진정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지구로 와서 관찰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분위기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오직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다른 행성만큼 발달되거나 문명화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에겐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지요. 우리는 이

사랑의 기운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미래에 다른 행성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 박수) 

Contents

차례

뉴스잡지 196호



출판일자: 황금시대 5년(2008년) 11월 8일
 설립년도: 1990년 4월 1일
 발행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Hsieh Hsin-lin
 인쇄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는 뜻인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영성 고양과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다.

- 2 스승님 말씀
우리 행성에 사랑의 기운을 퍼뜨리자
- 4 다채로운 이벤트
호주/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일본/ 대한민국/ 홍콩/ 포모사/ 중국/ 독일/ 토고
- 24 채식 시대
채식 전단의 힘/ '육식 추방의 날'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국제 '육식 추방의 날' 행사
- 27/ 33 스승님의 농담
자립하려면 철저히하게/ 추가 기도
- 30 이야기 창고
용감한 어린이 지구 수호대
- 31 특별 보도
오스트리아 호반 봄철 모임
- 34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기후변화의 해결책
- 40 지구를 구하자
꼭 읽어야 할 책-6도의 변화: 더워진 지구의 미래
- 43/ 70 시
생태/ 아기 돼지의 말
- 44 핫 토픽
지구 시간
- 46 황금시대의 과학 기술
세상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한 일생의 꿈
- 48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우루과이/ 국제개발기금
- 50 빛나는 세계 정직상
정직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 51 빛나는 세계 시민상
진정한 청춘 아이콘
- 52/ 58 빛나는 세계 영웅상
리켈메 웨슬레이 마시엘 도스 산토스/ 돈크리스토퍼 바네스/
고양이 워니/ 개 행크/ 개 마야/ 개 벨벳
- 54 빛나는 세계 자비상
진 매든 여사/ 다이아나 콘토스 여사/ 린송보 씨/ 치료견 샘
- 62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긍정적인 소식
아프리카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발명
- 63 진실된 이야기
행복한 개 천사
- 66 동물의 감성 세계
동물 심령사 제인 앨런 플로트킨과의 만남/
달려오는 차로부터 소녀를 구한 개
- 69 매체 보도
『동물의 세계』 잡지 2008년 3월호
- 72 사랑의 실천
볼리비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미국/ 중국
- 79 수행의 길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신의 사랑
- 80 전세계 연락처
- 83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와 MP4(다운로드용)/ DVD/ 견본책자
- 88 센터 이벤트
고귀하고 사랑 많은 동물들의 조각상이 시후 센터를 빛내다



다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인류는 계속되는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함으로써
지금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사태의 긴박성을 꿰뚫어 보시는 청하이

무상사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새로운 전단을 만들어 당신의 위대한 지혜를 나누시며
기후변화의 양상을 되돌릴 수 있도록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즉각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일깨우신다. 'SOS-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전단은 심각한 현 상황을 알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지구 균형을 유지할
길을 보여 준다. 스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 채식, 지속 가능한
에너지, 녹색 기술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여러 언어로 된 전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prememasterchinghai.net/sos.htm>



호주

어머니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퍼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퍼스] 지구의 환경이 한층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퍼스 센터
동수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채식(비건)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련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선데이 타임즈(Sunday Times)』에 SOS 메시
지가 1년 동안 매월 한 차례씩 게재되고 있으며, 스승님의 메시지가
담긴 전단도 발행 부수가 많은 한 지역 신문에 끼워져 수많은 퍼스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퍼스 사형사자들은 머독 대학(Murdoch
University) 환경 보호 대표 중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대학교에서

4차례에 걸쳐 '지구 온난화를 막읍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채식을 합시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대학(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에서 열린 '퍼스 태양 축제(Perth Sun Fair)'에 참가
했으며, 지역 환경 보호 단체들과 협력해 기후변화라는 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
는 합동 편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했다. 이 밖에 퍼스 지역 사회 신문

인 『인디펜던트 익스프레스(The Independent Express)』지

는 『SOS』 소책자 내용 일부를 게재해 주기로 동
의했다.





지구적 생각, 지역적 조치

‘지구적 생각, 지역적 조치’, 이것은 RTR-FM 라디오가 퍼스 동수들이 운영하는 ‘하나의 세상 요리(One World Cuisine)’ 채식(비건) 식당에 대해 방송하면서 평한 말이다. 이 라디오 방송국은 우리 식당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 한 방법으로 채식(비건)을 장려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시작한 무료 식사 제공 활동에 대해 한 동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동수들은 방송 매체와 정치인들을 초대한 가운데 이 새로운 경영 방식을 알리는 개업식을 주최했다. 참석자 중에는 멜빌(Melville) 시 시장 부부와 『오스트레일리안 차이니스 타임즈(Australian Chinese Times)』, 『준다롭 신문 그룹(Joondalup Newspaper Group)』, 『멜빌타임즈(Melville Times)』, 『프레맨틀헤럴드(Fremantle Herald)』,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안(West Australian)』 등의 신문사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지구 온난화에 대한 DVD를 대형 화면으로 상영하면서 한 동수가 나와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 상당히 놀라워했는데, 특히 목축업이 온실가스 방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말을 듣고선 한층 더 놀라워했다. 시장 부인은 이전까지 음식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며 반성했고, 시장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채식(비건)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요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런 활동이 ‘용감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날 즈음, 참석자들 모두 지구 온난화와 채식에 관한 내용이 담긴 DVD와 스승님의 신간 『고귀한 야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무료 식사를 즐기러 온 많은 비채식인들도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채식이 건강에 미치는 이로움에 마음이 끌린다고 했으며 채식 요리의 다양함과 간편한 요리법에 대해서도 매우 놀라워했다. 많은 손님들이 이제 자신들이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주방 일에서부터 웹사이트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당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많은 단골 손님들이 우리 활동에 찬조하고 있다. 식당을 다녀간 일부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서 우리 식당을 선전하기도 한다. 에디스콰인 대학(Edith Cowan University)과 머독 대학의 매체 대표도 우리를 인터뷰했다. ‘하나의 세상 요리’ 채식 식당에서 일하는 이들은 사랑하는 스승님의 격려와 많은 동수들의 사심 없는 헌신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기여하는 이 활동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다며 매우 감사하고 있다. 🌸

‘하나의 세상 요리’ 채식 식당 웹사이트:

<http://www.oneworldcuisine.com.au>



다 채로운 이 벤 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호주 청소의 날

시드니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시드니]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2일, 일요일 단체명상을 마친 시드니 센터 동수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카브라마타(Cabramatta)에 있는 '자유 광장(Freedom Plaza)'에 가서 '호주 청소의 날(Clean Up Australia Day)' 연례 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어울락 교민 사회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 단체와 개인들이 참가했는데, 그중에는 환경 의식을 가진 이곳 지역 사회 회장과 부회장, 불교 단체 및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TV' 전단을 받은 많은 참가자와 행인들이 관심을 보이며 '수프림 마스터 TV'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했다. '청소의 날' 행사가 끝날 즈음, 찬란한 햇살이 대지를 환하게 비추고 모든 시민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 주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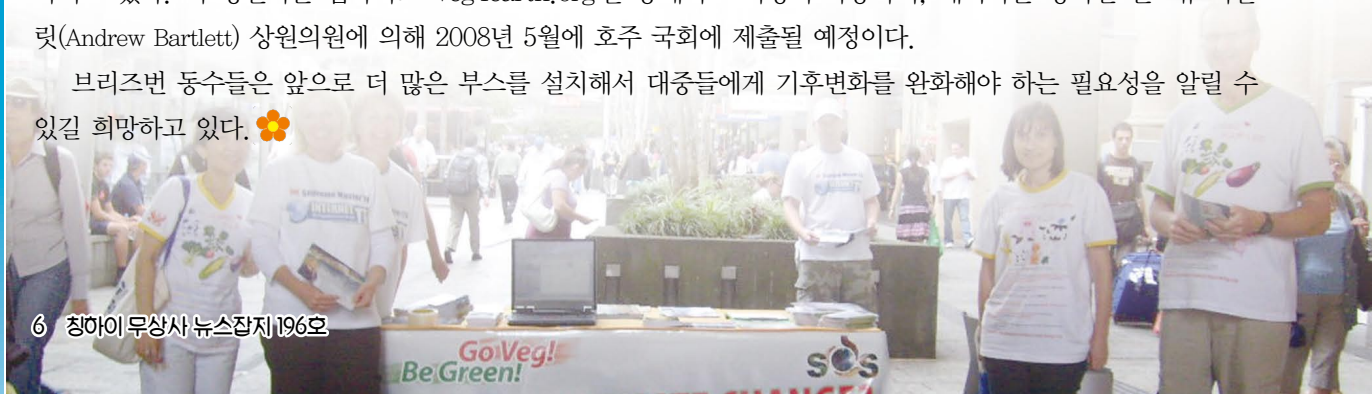
퀸스트리트를 SOS 활동

브리즈번 뉴스그룹 (원문 영어)

[브리즈번]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28일과 29일, 동수들은 브리즈번 시내의 변화한 퀸스트리트몰(Queen Street mall)에 SOS 부스를 설치해 대중들에게 지구 온난화 대책의 시급함을 알렸다.

이날 동수들은 SOS 전단과 '대안적인 삶' 전단, SOS 메시지가 담긴 DVD를 배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즉시 받아 갔다. 가던 길을 멈추고 질문하는 행인들도 있었으며, 한 요가 지도자는 'SOS'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동수들과 함께 전단을 나눠 주기도 했다.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을 나온 한 교사는 "이런 걸 배워야 해요."라고 하면서 전단을 많이 가져갔다. 이 밖에 사람들은 '지구를 위해 채식하자(veg4earth)'라는 청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청원서는 웹사이트 'veg4earth.org'를 통해서도 서명이 가능하며, 채식하는 정치인 앤드류 바틀릿(Andrew Bartlett) 상원의원에 의해 2008년 5월에 호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브리즈번 동수들은 앞으로 더 많은 부스를 설치해서 대중들에게 기후변화를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릴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



다채로운 이벤트

우리 함께 지구를 구합시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 설치된 SOS 광고판

오클랜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클랜드]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SOS 기후변화' 포스터를 설치하고 싶다는 동수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은 아이사(EYE Corporation: 호주 최대 옥외의 광고 회사 가운데 하나)의 크리스틴 존스(Christine Jones) 여사는 즉시 공항 당국에 허가를 요청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오클랜드 국내선 공항에도 SOS 메시지를 광고할 자리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광고판이 오클랜드에 설치되어 여행객들에게 기후의 위급한 상황과 지구 온난화의 진짜 원인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오클랜드 동수들이 존스 여사의 호의적인 노력과 인정 많은 지지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감사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자 그녀는 무척 놀라워했다. 존스 여사는 기쁘게 그 선물을 받으면서 남을 도울 때면 언제나 행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존스 여사의 모든 고귀한 노고에 신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

오클랜드 동수들이 존스 여사의 호의적인 노력과 인정 많은 지지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감사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자 그녀는 무척 놀라워했다. 존스 여사는 기쁘게 그 선물을 받으면서 남을 도울 때면 언제나 행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존스 여사의 모든 고귀한 노고에 신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



태국

지구 온난화 방지에 협력하다

태국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기후변화 전단 배포

[태국] 사랑하는 스승님의 'SOS 기후변화' 메시지를 받은 태국 동수들은 서둘러 이 시급한 소식을 전국에 알리기 시작했다.





다 채로운 이 벤 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동수들은 먼저 국내 대형 일간지와 접촉해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15일·16일자 신문에 SOS
메시지를 실었다. 또 방콕 거리와 사무실, 학교, 가게, 사찰, 주차장
등지에서 태국어 전단 30만 장과 영어 전단 3만 장을 배포했다. 이 밖
에 포스터·전단·VCD·CD로 이루어진 4,917세트를 정치인, TV·라디
오 방송국 사장, 신문·잡지 편집자, 학교·은행·병원 책임자 등 태국
각지의 수많은 기관 지도자들에게 발송했다.



채식주의 전파

또한 3월 23일 이른 아침에는 철야 단체명상을 마친 후, 아침저녁
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운동하는 방콕 상업 구역 중심지에 있는 룬
피니 공원(Lumpini Park)에서 사랑이 담긴 비건 음식과 기후변화 전
단을 함께 배포했다. 사형사저들은 채식이 얼마나 맛있고 만들기 쉬
운지를 알리기 위해 350개의 비건 음식 꾸러미를 나눠 주었는데, 아
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우리 협회에 대해서 묻
고 지구 온난화와 그 해결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이어서 3월 24일 저녁에는 사라부리(Saraburi) 지방으로 가서 그
곳 공장 노동자들에게 500개의 음식 꾸러미를 나눠 주었다. 음식을
나눠 주는 과정에서 많은 행인들이 전단도 같이 요청
했다. 글을 모르는 한 할머니는 전단에 인
쇄된 아름다운 스승님의 사진을 보
고 싶다며 전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단을 다 배포하고 나
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두들 스승님의 크나

큰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태국 동수들은 이제 다음 배포 일정을
고대하고 있으며, 스승님의 사랑과 어머니 지구를 구할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이 멋진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하고 있다. 🌸





싱가포르

세상을 향한 긴급한 호소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전단 배포

[싱가포르] 대중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알리고자 싱가포르 동수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초, 'SOS 지구 온난화' 전단 배포 활동을 시작했다. 전단 20만 장을 배포하는 이 활동의 첫 단계에서 시민들로부터 상

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받았다. 한 예로, 우리 전단을 받은 싱가포르 이공대학(Singapore Polytechnic) 환경 동아리의 한 학생은 교내에서 열린 '녹색 축제(Green Carnival)'에 우리를 초청하기도 했다.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자전거 여행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자전거 여행이 싱가포르 부킷바톡 공원에서 시작되다.

대중의 의식을 한층 더 일깨우기 위해 한 동수가 놀라운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다. 이번 여행에서 그는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구합시다! 우리 생명을 보호합시다!'가 인쇄된 깃발을 달고 싱가포르에서부터 말레이시아, 태국을 지나 라오스를 횡단해 중국 만리장성까지 갈 예정이다. 6개월에 걸쳐 총 9,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행은 3월 10일, 이 동수를 응원하고 배웅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싱가포르 '부킷바톡 자연공원(Bukit Batok Nature Park)'에서 시작되었다. 용기 있는 이 대장정은 매체에도 실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육식과 지구 온난화 간의 밀접한 연관성과 그 값비싼 대가에 대해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베이징에서 만리장성으로 향하는 긴 여행.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자전거 여행을 다룬 기사.



다채로운 이벤트

우리 함께 지구를 구합시다

‘채식을 합시다!’라는 의식

싱가포르 센터에서 전단 배포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의 주요 영자 신문인 『스트레이츠타임즈』(THE STRAITS TIMES)에 두 편의 기사가 실렸다. 하나는 ‘육식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며(Fleshing Out the Problem of Eating Meat)’였고 다른 하나는 ‘지구 온난화-이제는 타협이 아닌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Global Warming-Time Now for Ruthless Measures, Not Compromise)’였다. 첫 번째 기사는 도살장의 무시무시한 사진을 싣고 육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두 번째 기사는 ‘수프림 마스터 TV’에서 방송된 ‘지금은 행동할 때!’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 메시지와 다른 각종 메시지를 통해 싱가포르와 전세계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긴급 호소를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해 아름다운 지구의 운명을 바꾸길 희망한다. 🌻



일본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한 녹색 메시지 전파

도쿄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도쿄] 도쿄 센터 동수들은 모든 일본인에게 ‘SOS 지구 온난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주말마다 SOS 전단을 배포했다.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16일까지 우리는 이미 다섯 번의 원정 배포 활동을 통해 하코네(箱根), 시즈오카(静岡) 시, 나마주(沼津), 고템바(御殿場), 오다와라(小田原), 오이소(大磯), 사이타마(埼玉), 오미야(大宮), 오메(青梅) 시의 요시노바이고(吉野梅郷, 매화 공원으로 유명한 마을), 미토(水戸)의 가이라쿠엔(偕楽園) 공원 등 후지 산 인근 지역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직접 전단을 나눠 주는 한편 우편함에도 넣었다.

하코네에서는 외국 여행자들을 위해 특별히 중국어와 영어로 인쇄된 전단을 준비했는데, 중국 여행객 한 팀이 선물로 가져가겠다며 많은 양의 전단을 요청하는 기쁜 일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전단을 받아 주의 깊게 읽었다.

일본 동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SOS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루빨리 채식을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 지구 온난화 위기를 되돌릴 수 있도록 일깨울 것이다. 🌻



다채로운 이벤트

우리 함께 지구를 구합시다



대한민국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SOS 메시지 전파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5일, 한국의 저명한 월간지인 『시사 매거진』에 실린 두 페이지 분량의 ‘SOS! 온난화에 신음하는 지구를 살리자’라는 기사에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유익한 CD 제작

부산 센터 동수들은 창의성과 재능을 한껏 발휘해 기후 온난화와 채식에 관한 두 시간 반짜리 다큐멘터리 CD를 편집했다. 여기에는 나사 기후변화 보고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앨 고어가 세상에 보내는 경고, PETA(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채식을 해야 하는 30가지 이유’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3월 21일 CD를 완성한 동수들은 대중 강연과 유통용으로 4천 장을 제작했다. 🌸

아름다운 지구 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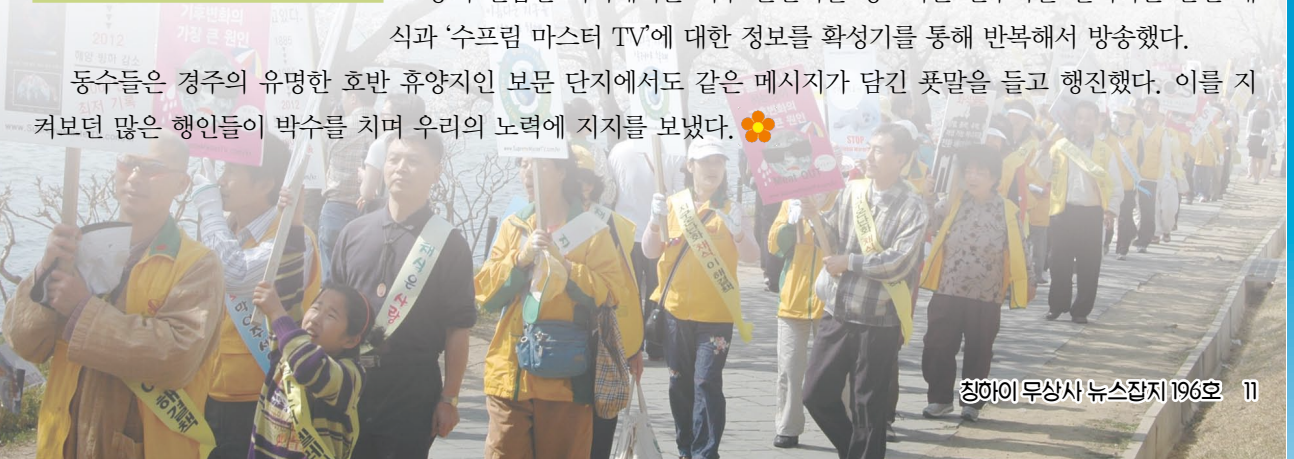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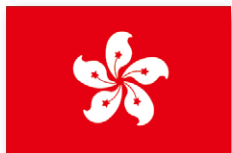
[경주]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경주에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이 만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러 나온다.

지구를 구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동수들은 4월 6일 경주에서 만나, 꽃구경 나온 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알렸다.

동수들은 이 활동에서 SOS 전단과 채식의 장점을 다룬 자료들을 배포했다.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채식과 ‘수프림 마스터 TV’에 대한 정보를 확산기를 통해 반복해서 방송했다.

동수들은 경주의 유명한 호반 휴양지인 보문 단지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담긴 꽃말을 들고 행진했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행인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





홍콩

‘애완동물 자선 걷기 대회’에서 채식주의 이상을 전파하다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홍콩]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30일, 홍콩 동수들은 홍콩동물보호협회(Hong Kong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HKSPCA)가 주관한 ‘2008 애완동물 자선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모금된 돈은 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이 행사에서 동수들은 채식 음식 바자회를 여는 한편 특히 이날의 주인공인 개들을 위해 ‘견공 충전소’와 ‘견공 급수대’를 설치해 개들이 기운을 북돋울 수 있도록 러빙푸드 채식 개 사료와 물을 무료로 제공했다. 생기 발랄하고 귀여운 많은 개들이 주인과 함께 와서 즐겁게 먹고 갔다. 채식 개 사료가 개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개 주인들이 그 자리에서 채식 사료를 구입해 갔다.

동수들은 ‘동물보호협회’ 진행 요원들을 위한 맛있는 채식 음식도 준비했으며, 이들의 도움으로 대회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선물 가방에 ‘SOS 기후변화’ 전단도 같이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대중들에게 채식 생활 방식이 지구 온난화를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었다.

동수들은 이날 바자회에서 생긴 수익금 전액을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하고 스승님의 동물 시리즈 책과 DVD도 기증했다. 그들은 이 귀중한 자료들을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열한 번째 시간’ 영화 시사회

홍콩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3월 23일,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 카프리오(Leonardo DiCaprio)가 ‘열한 번째 시간(The 11th Hour)’ 시사회와 영화 홍보를 위해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했다.

이 영화의 나레이터를 맡은 디카프리오 씨는 제작자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열한 번째 시간’은 지구 온난화를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인간 활동으로 야기된 환경 위기와 인류가 이 행성에 가한 충격,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파괴한 환경을 우리가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상황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스승님 책과 SOS 전단을 감사히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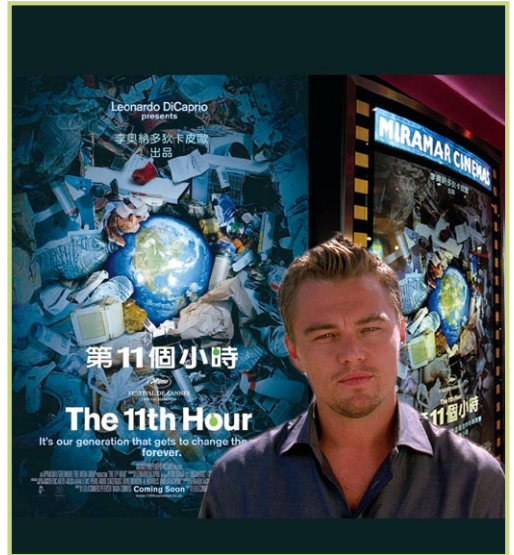
행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서 디카프리오 씨는 환경 보호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면서 자신의 경우, 집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했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 용품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현재의 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녹색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이 사람들을 일깨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동수가 스승님의 책 『음악으로 하나 되는 평화의 세상 (One World of Peace through Music)』과 SOS 전단을 전달하자 디카프리오 씨는 매우 고마워하며 받았다. 우리는 매체 기자들과 디카프리오의 팬들에게 SOS 전단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특별 보도 내용을 배포했다. 디카프리오 씨와 과학자들, 환경 보호 지지자들, 그리고 ‘열한 번째 시간’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구를 구하기 위해 바친 이들의 고귀한 노력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



‘열한 번째 시간’ 시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한 레오나르도.



매체 기자들과 레오나르도 팬들에게 SOS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협회 회원들.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학생들이 채식 생활 방식을 대환영하다

타오위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포모사

[타오위안] 타오위안 현 양메이(陽梅)중학교에 근무하는 천 사저는 자신이 맡은 세 학급의 학생들에게 ‘SOS 지구 온난화’ 메시지를 전했다. 그 결과 80%가 넘는 학생들이 교내 급식을 채식으로 주문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다.

천 사저는 단편 영화 ‘철창 뒤에 숨겨진 눈물(Hidden Tears Behind the Iron Wall)’과 ‘SOS 나사 기후변화 보고서’를 학생들에게 보여 주면서 설명도 해주었다. 학생들은 육식이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또한 인류가 먹을 것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이 매우 잔인한 행위라고 느꼈다.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다음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원래 정해져 있던 점심을 채식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으며 천 사저에게 채식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도 했다. 그녀가 맡은 3개 학급의 학생 중 2/3 이상이 지구를 구하고 싶어서 채식 점심을 신청했다. 어떤 학생들은 채식을 하게 된 동기를 잊지 않음으로써 고기 먹는 습관을 확실히 극복하고 싶다며 천 사저에게 ‘철창 뒤에 숨겨진 눈물’을 한 번 더 보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 어떤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가정 연락부에 SOS 전단 내용을 열심히 베껴 썼으며, ‘채식으로 지구를 구하자’ 메시지를 가족, 친구들과 나누기도 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아들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여 앞으로 온 가족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기로 했다.

현재 양메이중학교 측은 이미 천 사저가 1학년 학생들과 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SOS 메시지’에 대해 강연할 수 있도록 두 시간을 배정해 두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일어나 전 인류를 일깨우고 지구 온난화를 멈출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단편 영화를 시청한 학생들이 천 사저가 만든 설문지에 쓴 소감.

인터넷으로 ‘철창 뒤에 숨겨진 눈물’을 보시려면: <http://www.youtube.com/watch?v=30xkWNkQfQY>

인터넷으로 ‘SOS 나사 기후변화 보고서’를 보시려면: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veg/video/NASA.php>





'2008 타이완 등불제'에서 환경 메시지를 전파하다

타이난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난]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6백만이 넘는 인파가 몰린 가운데 '2008 타이완 등불제'가 타이난 과학 단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주최 측의 초청을 받아 참가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평화의 시작은 우리로부터'라는 주제로 칭하이 무상사의 만세등, 채색 부채, 그림과 같은 각종 예술 창작품을 전시했다. 이 아름답기 그지 없는 작품들은 대중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스승님의 만세등에서 발산되는 은은한 불빛에 이끌려 찾아온 관람객들은 우리 전시장이 가장 특색 있다고 하면서 칭하이 무상사의 만세등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독특한 디자인에 매료되어 이 보기 드문 예술품을 사진에 담았다.

동수들은 매일 밤 연주회와 무용 등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고 견본책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관련 정보를 나눠 주었다. 우리는 행사 중에 지구 온난화에 관한 영화들을 상영하고 퀴즈 대회도 열어 맞힌 사람에게는 스승님의 신간을 상으로 주었다. 또 전시장 안팎의 시민들에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한편 열심히 SOS 전단을 돌림으로써 지구 온난화가 가져올 심각한 영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우리의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으며, 일부 스님들과 고등 학생들은 자기 지역에서 배포하겠다고 전단을 가져가기도 했다.

12일의 행사 기간 동안, 더웠다 추웠다 하는 날씨와 황사, 비 속에서도 동수들의 마음은 오직 지구 온난화에 대한 스승님의 염려를 가능한 한 많은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실제로 스승님의 이런 이상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샀다. 이 외 타이난 현장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행사에 참가해 준 데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채식과 환경 보호의 대열에 참여해 지구 온난화 위기를 되돌릴 수 있길 소망하며, 앞으로 수만 년이 흘러도 여전히 이 지구가 빛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 🌸





‘넷웨이브 유선방송’의 가특한 무료 방송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리시친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동수들.

설비를 새로 확충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타이베이 시 중정(中正) 구와 완화(萬華) 구 주민들은 115번 채널을 통해 건설적이고 영감을 주는 소식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익을 생각하는 ‘넷웨이브 유선방송’의 이번 조치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리시친 회장을 방문해 스승님을 대신해 감사장을 수여하고 만세등과 스승님의 저서 『고귀한 야생』, DVD 등을 선물했다. 이 회장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소식과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사회적 필요에 아주 잘 부합합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보니, 국제협회 측에서 상당한 인력을 투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칭하이 무상사는 이 시대와 전 지구, 심지어 동물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면 반드시 전세계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



사진으로 보는 이야기

웹사이트 Dsopen.com은 오랜 기간에 걸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각종 소식을 전하는 데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SOS 메시지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무료로 게재해 주기까지 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총책임자인 우루이야오(吳瑞瑤) 씨에게 감사장과 스승님의 책 등을 선물했다.



젊은이들 사이에 높아지는 환경 의식

타이베이 대학 팀 (원문 중국어)



3월 8일과 9일, 연례 행사인 '대만대 철쭉 축제'가 국립 대만대학교 교내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대만대학교 동아리인 '광음회'와 타이베이 대학 팀 동수들은 함께 행사장에 세 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구합시다!'라는 이상을 홍보했다.

축제 기간 동안 우리는 재생 재료로 부스를 장식함으로써 긍정적인 본보기를 보였다. 또 참가 학생들이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도 환경 의식이 풍부한 게임도 진행했으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채식 빵과 간식거리도 무료로 제공했다. 이 밖에 학생들이 좀더 쉽게 채식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만대학교 부근의 채식 식당 자료도 나눠 주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포모사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되다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평후

[평후] 신의 무한한 은총과 축복으로 '국가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평후 유선 TV'의 공용 채널(3번)을 통해 이미 방송되고 있다. 평후 섬과 인근의 후징(虎井), 지베이(吉貝), 냐오위(鳥嶼) 섬의 수신 가구는 현재 매일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공용 채널은 정부 기관과 학교, 비정부기구, 시민이 공익·예술·문화·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는 채널로서 공공 복리와 대중에게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며 상업이나 정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은 방송할 수 없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심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방송할 수 있는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은 이 조건에 완전히 부합했다.

방송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사인 한 사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아주 열렬한 반응을 접하게



다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되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참 재미있어요. 엄마, 아빠랑 매일 같이 봐요.”,
“SOS 기후변화 영상을 제일 좋아해요. 그걸 보면 지구가 이미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채식을 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알려줘요.” 🌸

화롄



[화롄] 화롄 동수들은 화롄 남구 ‘동아 케이블 TV’에 전화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소개했다. 설명을 들은 황자오이(黃照義) 사장은 그 자리에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24시간 방영하도록 채널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한편 그 즉시 우리에게 연락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신의 은총 속에 화롄 남구 주민은 4월 12일부터 케이블 TV 100번을 통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이고 깨우침을 주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되었다.

4월 3일, 화롄 동수들은 ‘동아 케이블 TV’를 방문해 황 사장과 그 직원들에게 스승님의 신간 『고귀한 야생』 한 권과 『SOS 지구를 구하자』 소책자 한 묶음, 채식 간식을 전달하며 그들의 사심 없는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

식목의 달 행사

포모사 뉴스그룹 종합 (원문 중국어)

[포모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온난화 위기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포모사 행정원 농업위원회 임업국은 올해 ‘식목의 달’ 동안 ‘한평생 나무 한 그루 심기로 푸르른 터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국민들에게 평생에 최소한 한 그루라도 심도록 권장함으로써 지구를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자원을 물려주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포모사 각 센터는 실제 행동으로써 이 의미 있는 사업에 동참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건설적인 생각에 지지를 보냈다.

타오위안 동수 약 100명은 3월 29일과 30일, 타오위안 푸싱



다 채 로 운 이 벤 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復興) 향 동연산(東眼山)과 관인(觀音) 향 슈린(樹林) 주택단지에서 열린 식목 행사에 참가했다. 둘째 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도 동수들이 1,100그루의 묘목을 심어서 주최측의 칭찬을 받았다. 타이베이 동수들도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적 전통을 만들어 물려주자는 주제로 타이베이 현 우라이(烏來) 향에서 개최한 ‘채식, 나무 심기, 환경 보호, 지구 구하기’ 행사에 참가해 200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

또한 가오슝 동수들은 센터에 약 200그루의 각종 나무를 심어 환경 보호에도 협조하고 센터에 자연의 정감과 푸르름도 더했다. 조금 지나면 동수들이 나무 그늘에서 야외 명상도 할 수 있을 테니 정말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핑둥 라이이 동수들은 3월 23일 일요일 단체명상을 마친 뒤 라이이 센터의 공터에 묘목 80그루를 심었다. 라이이 센터는 앞으로도 나무 심기 행사를 계속할 것이며, 포모사를 녹음이 우거진 푸르른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사생 대회에서 채식과 환경 의식을 고취하다

장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장화]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30일, 장화 ‘생활미학관’과 ‘자연과학박물관’은 포모사 중부 5개 현과 시를 대상으로 한 ‘2008 춘계 사생 대회’를 합동 개최했다. 장화 동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대회가 열린 아름다운 텐웨이(田尾)의 ‘행복 공원’에 부스를 설치하고 ‘채식으로 지구 온난화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메시지를 널리 알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만 명이 넘는 인파가 계속해서 몰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동수들이 왕 여사에게 채식 사료 스물다섯 포대를 전달하다.

합장하며 감사를 표하는 왕위전 여사.

20 청하이무상사 뉴스잡지 196호



중 국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 협력하다

중국 동수 보도 (원문 중국어)

쓰촨 성

[중칭]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12일 식목일, 우리 국제협회 회원들은 중칭(重慶) 시민들과 함께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해 작년 화재로 파괴된 150에이커의 황량한 산비탈에 나무를 심었다. 올해 심은 묘목은 모두 활엽수 중 불이 잘 붙지 않는 종류로서, 적어도 2만 그루는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더 많은 나무를 심어서 지구 온난화를 멈출 수 있길 바란다.



산시 성



[시안] 지구를 구하라는 스승님의 호소에 따라 시안(西安) 동수들은 나무 심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3월 8일과 9일, 시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민둥산으로 가서 나무를 심었다. 산길은 가파르고 온통 가시와 암벽투성이였지만 동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묘목을 안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었다.

다음날, 모두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짙

은 연기로 가득 차더니 이어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즉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 동수들은 일부 나무가 벌써 불에 타버린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우리는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최선을 다해 불길을 잡으려 애썼다. 2시간이 채 못 되어 마침내 사나운 불길이 잡혔다. 산을 내려오다가 정부에서 파견된 소방대를 만났는데, 우리 사형사저들이 이미 불을 껐다는 말을 들은 소방대원들은 놀란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우리의 신속한 대처와 두려움 없는 정신에 감탄했다.





다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베이징



[베이징] 3월 30일, 70여 명의 베이징 동수와 가족, 친구들이 베이징 교외에 나무를 심었다. 십대의 어린 동수들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총 700여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산림청 직원은 우리의 성실한 태도를 몇 번이나 칭찬했다.

동수들은 산림 녹화 작업에 참여해 지구를 구하는 일을 돕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나무를 심을 기회가 생길기를 기대하고 있다. 🌸



독일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스승님의 신간을 소개하다

독일 뉴스그룹 (원문 독일어)

[라이프치히]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 박람회인 '라이프치히 도서전(Leipzig Book Fair)'이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21만 9천 명의 방문객이 몰려 사상 최고 인파를 기록했다.



최근 오스트리아 선행사에서 스승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영국·오스트리아·독일 동수들은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 스승님의 책을 대중에 소개했다.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로, 사형사저들은 이 지역에서 한 호텔을 찾게 되었는데, 직원들이 아주 친절할 뿐만 아니라 맛있는 비건 식사도 제공해 주었다. 스승님의 신간을 유럽으로 수입·배포할 목적으로 '노블크리에이션사(Noble Creation Co. Ltd)'라는 출판사를 설립한 영국 동수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도서전에서 스승님의 책을 독일어로 출간할 출판사를 물색했다. 일부 동수들은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Dresden) 시내로 나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과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긴급 메시지를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행사장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다채로운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고귀한 야생』에 매료되었다. 한 어린 소녀는 『고귀한 야생』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한 페이지씩 꼼꼼히 읽었으며, 어떤 여성은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도서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시 구역에 포함





되어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수많은 애원동물 보호자들이 동물

을 사랑하라는 책의 메시지에 공감했다. 이 밖에 우리는 스승님의 책이 조만간 독일어로 출간될 것이란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도서전을 계기로 동수들은 독일과 폴란드의 여러 인쇄소와 독일 출판사들과 연결되었다. 독일 최대 통신사인 DPA 소속의 한 여성은 우리 부스를 촬영해 가 기까지 했다. 행사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친절함 마음씨를 가진 동물 묘지 관 리자이자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에 관한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하는 롤란드 하웁트 만(Roland Hauptmann) 씨를 인터뷰했다.

동수들은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참가해 스승님의 특별한 책을 대중과 나누 고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 께 깊이 감사드렸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 또한 우리에게 큰 격려 가 되었다. 인류가 하루속히 깨어나 어머니 지구와 지구의 모든 공동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희망한다. 🌸



우리 협회 회원과 인터뷰하는 로랜 드 하웁트만 씨(가운데).



토고

고등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다

로메 뉴스그룹 (원문 영어)

[로메]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4일, 서아프리카 토고의 로메(Lome) 동수들은 로메 아디도곰 기술고등학교(Adidogome' Technical High School) 학생들과 함께 나무 심기 행사를 펼쳤다. 우리는 이 행사를 통해 대중들이 지구 온난화가 우리 지역에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려면 산림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일깨우길 희망했다.

학생들은 이 활동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협회 회원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 약 1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 일을 하면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심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나무가 비를 물고 오니까요. 그럼 더운 날씨도 시원해지잖아요.” 이날 행사 내내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참가한 사람들 모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힘을 보탬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행복해했다. 🌸



채식 전단의 힘

중국 시민 (원문 중국어)

안녕하세요!

2007년 어느 날 오후, 중국 북동부의 한 기차역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전단을 한 장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쓰인 글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분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대략 60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처음 전단을 건네 받았을 때는 부동산 광고려니 하면서 그냥 예의상 받았지만 놀랍게도 거기에는 채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그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할아버지는 이미 저만큼 멀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소감을 알려드릴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 따뜻하고 부드러운 한 구석이 큰 감동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고 팔지 않으면 죽음도 없다.’ 이것은 중국 동물 보호주의자들의 구호입니다. 저는 소들이 도살되기 전에 흘리는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닭들이 머리가 잘린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끔찍한 장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살고 싶다는 그들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인류는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일 뿐, 다른 존재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동물을 먹었던 우리의 육식 조상들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굳은 마음으로 채식주의의 대열에 가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동료와 친구,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불교 신자가 된 거냐고 묻고 어떤 이들은 그후로 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거나 거리를 두기까지 합니다. 제가 채식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줘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심지어는 저를 바보 취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길임을 확신하기에 누군가 동행을 하든 말든 앞으로 계속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채식을 하세요! 환경을 보호하세요!’ 전단을 나눠 주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그런 활동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전에 마주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와 함께 전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전단만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전단에 나온 주소로 보냅니다. 어쩌면 제 글이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저와 같은 이상을 가진 많은 동지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

- 굳건하게 채식을 하고 있는 보통 사람



‘육식 추방의 날’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뉴스 정리 (원문 영어)

1 985년부터 ‘농장동물개혁운동(Farm Animal Reform Movement, FARM)’은 매년 북반구의 춘분이 되면 채식의 이점을 알리기 위한 대중 교육 행사를 개최한다. 채식 요리와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격려하는 이 행사는 ‘육식 추방의 날(Meatout Day)’로 불린다.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소고기 1억 4,300만 파운드를 리콜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소고기 리콜 사건이었다. 올해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세계 시민들이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육식 추방의 날’ 행사를 주최해 친구와 이웃에게 식생활을 채식으로 바꿔 인류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고 호소했다. 이번 2008년 행사에는 미국 50개 주를 비롯해 전세계 25개국에 참가했다.

FARM 설립자인 알렉스 허샤프트(Alex Hershaft) 박사는 우리 삶에서 육식을 추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는 물론 본인의 건강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행해진 많은 연구에서 육류 소비가 심장병·암·뇌졸중·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증가와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육식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컨대 지구 온난화 같은 거지요. 육류 생산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합니다. 또한 목축업은 야생 생물의 서식지와 우리의 식수 공급원,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채식



알렉스 허샤프트 박사.

을 하게 된 동기는 오늘날 공장식 농장과 도축장에서 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되고 있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행위 때문입니다.”

‘수프림 마스터 TV’에서는 ‘육식 추방의 날’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어 국제 통신원들이 한국·브라질·불가리아·포모사·요르단·코스타리카·미국 등 전세계 많은 국가의 참가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육식 추방 행사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채식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되었으며, 우리 자신과 지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평소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 가운데 미국 조지아 주 ‘이마니 전인 건강협회(Imani Holistic Health Institute)’의 더크 트와인(Dirk Twine) 씨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목축업에 사용되는 곡물 총량은 전세계 인구를 먹이고도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목축업에 사용되는 그 식량을 굶주리고 있는 나라에 공급한다면 전세계에 막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워드 리먼 씨.

4대째 목장을 경영했고 『나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Mad Cowboy)』를 쓴 저자로 유명한 하워드 리먼(Howard F. Lyman) 씨는 ‘육식 추방의 날’을 맞아 사람들에게 영원히 육식을 포기하라고 격려했다. 소를 키우고 비육장을 운영하던 그는 몇 년 전 비건 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는 이 전환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믿는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가이며 저자가 된 그는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식생활을 비건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다. 최근 그는 ‘수프림 마스터 TV’와의 인터뷰에서 ‘육식 추방의 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대한 미국 ‘육식 추방의 날’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목숨을 구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날을 축하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이 행사에 주목하고 ‘나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다. 나는 어쩌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은 이것이 이 세상과 동물들을 위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길 바라고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 캠던(Camden) 구 의원이며 ‘문화환경감독위원회’ 위원인 알렉시스 로웰(Alexis Rowell) 씨도 시민들에게 채식을 채택하도록 촉구했다. ‘수프림 마스터 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로웰 의원은 말했다. “육류와 유제품의 섭취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건강과 환경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모두 예외 없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를 막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축산업이 질병과 기후변화 모두에 큰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 조사에서는 채식주의가 성장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수학 교수이자 '북미유대인채식협회(Jewish Vegetarians of North America)' 회장이기도 한 리처드 슈와츠(Richard H. Schwartz) 박사는 지구 생존과 관련된 주요 요소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는 최근 '수프림 마스터 TV'와의 인터뷰에서 채식 위주의 식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하며 그 이유는 육식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교수는 이에 덧붙여 전세계의 전쟁과 폭력 또한 지나치게 낭비적인 우리 식습관과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었다. "이 때문에 나는 평화 운동과 채식 운동의 구호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고기 없는' 식생활로 바뀌야 할 이유는 이토록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설득력도 강하다. 전세계적인 '육식 추방의 날'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채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건강에도 더 이로우며 환경과 우리 동물 친구들에게도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채식으로 향하는 이런 추세가 급속히 성장해 전세계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자비롭고 건강하며 지구를 구하는 채식 생활 방식을 선택하길 소망해 보자. 🌸

'수프림 마스터 TV'에서 방영된 '육식 추방의 날' 특별 보도를 시청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NEWS549-554.asf>

'육식 추방의 날'에 대해 유명 채식주의자와 기타 인사들과 가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인터뷰 방송을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VEG557j.php>

스승님의 농담 

자립하려면 철저하게

칭하이 무상사/ 2007. 8. 25. 프랑스 파리 선삼 (원문 영어)

한 남자가 서점에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립 관련 서적 코너가 어딘가요?"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가르쳐 주면 본래 의도에 어긋나는 게 아니겠어요?" 🌸

스승님의 농담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news/196/jk1.htm>
<http://www.Godsdirectcontact.us/sm21/enews/www/196/jk1.htm>





국제 ‘육식 추방의 날’ 행사

‘육식 추방의 날’ 활동에 동참하고자 전세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각종 행사를 개최해 사람들에게 해로운 육식 대신 건강한 채식 생활로 바꿀 것을 장려했다. 다음은 그중 일부 활동이다.

싱가포르

500인분의 무료 채식 식사 제공

싱가포르 동수들은 한 채식 커피숍에서 대중에게 무료 채식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커피숍 부근의 병원과 회사에는 도시락을 배달했다.



포모사

‘고기 없는 음식’ 세상을 만들기

포모사 동수들은 지하철역·기차역·공원·상가 지역에서 SOS 전단 배포하기, 대형 첨단과학기술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식 음식 무료 시식회 개최, 학교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강연하고 학생들에게 채식 점심 제공하기 등 갖가지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채식을 장려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긴급 메시지를 전하다

노르웨이 센터 동수들은 매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슬로 시청에서 ‘SOS 기후변화’·‘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또한 ‘육식 추방의 날’ 현수막을 설치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로운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호주 퍼스

국제 ‘육식 추방의 날’ 3주년 활동

퍼스 동수들은 머독 대학교(Murdoch University)에서 열린 ‘육식 추방의 날’ 행사에 참가해 전단을 나눠 주고 NASA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 메시지와 지구 온난화 위기를 일깨우는 스승님의 동영상 상영했다.

미국 오하이오

신시내티 시내 환경 보호 및 채식 장려 행사 개최

오하이오 센터는 대중에게 채식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신시내티 시내에서 ‘대안적인 삶’ 내용이 담긴 SOS 전단을 나눠 주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기 없는 훌륭한 점심 식사

새너제이와 샌프란시스코 센터 동수들은 ‘샌프란시스코 채식협회(San Francisco Vegetarian Society)’와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First Unitarian Universalist)’ 교회가 주관한 ‘육식 추방의

날’ 행사에 참가해 여러 손님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요리사 쉬너 여사가 준비한 화려하고 풍성한 점심이 무료로 제공됐는데, 메뉴에는 각양각색의 채식(비건) 요리들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저명한 초청 연사들이 채식의 이로움과 사람들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연설했다.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교회 목사.



수 의사 엘리엇 박사.



행사에 참가한 비건 요리사 미요코 니시모토 쉬너(Miyoko Nishimoto Schinner) 여사.

캐나다 토론토

건강한 마음과 영혼, 환경을 위해

토론토 동수들은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물 권리 단체 ‘구속되지 않는 마음(Wild at Heart)’의 주최로 열린 제3회 ‘캐나다 육식 추방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는 ‘건강한 마음과 영혼, 환경을 위하여’라는 맛있는 채식 뷔페도 마련되었다.



프랑스 파리

성공적인 채식 홍보 활동

파리 센터 동수들은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모인 베르사이유 전람 센터(Parc de Versailles Fair Center)에서 500개의 비건 샌드위치를 나눠 주고 ‘기후변화’ 전단과 스승님의 책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배포했다.



영국

지구에 거는 희망

영국 동수들은 잉글랜드 브라이튼(Brighton) 지방에서 열린 ‘고기 없는 월요일’ 행사에 참가해 채식 음식을 팔고 ‘기후변화’ 전단을 나눠 주었다. 🌻





용감한 어린이 지구 수호대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허 베이에 사는 윈윈(雲雲)과 모모(默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황금시대 4년(2007년)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을 듣고 나서 자발적으로 채식을 시작했다. 윈윈은 할머니와 함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보다가 온난화로 지구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아 울었다. 할머니는 윈윈을 안아 주며 웃으면서 말했다. “네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단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재난이 줄고 모두를 구할 수 있어. 우리에게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2년 남았단다.” 그러자 윈윈은 자신감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자 아이인 모모와 함께 ‘완전 채식’을 회원 가입 조건으로 하는 ‘어린이 지구 수호대’를 만들고선 지역 사회와 학교 등지에서 SOS 전단을 나눠 주기 시작했다.

윈윈은 전단을 건네 줄 때면 항상 먼저 공손하게 인사부터 하고 이렇게 말한다. “지구를 구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진한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진실한 말에 감동하며 “고맙다. 참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말한다. 몸이 튼튼한 모모는 피곤함에도 굴하지 않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전단을 나눠 준다. 썩썩 불어오는 겨울 바람에 입술이 터서 피가 나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지막 한 장 남은 전단까지 다 나눠 주고 나서야 겨우 물을 마신다.

윈윈은 때로 사람들에게 이 긴급한 메시지를 알리는 일을 하다가 좌절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그녀에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을 들려 주곤 했다. “참으로 뛰어난 사람은 도(道)를 들으면 힘써 실천하고, 중간 정도의 사람은 도를 들으면 긴가민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주 낮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큰 소리로 비웃고 만다. 비웃지 않으면 도라 하기에 부족하다.” 이 말을 들은 윈윈은 금방 자신감을 되찾고 아주 명랑해졌다! 그녀는 8살 난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어린이 지구 수호대에 들어올래?” 언니가 대답했다. “그래! 난 우리 반 홍보 간부니까 반 친구들에게 전단을 나눠 줄 수 있어.” 윈윈이 말했다. “그럼 꼭 채식을 해야 해.”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런데 전단을 나눠 주는 건 너무 피곤해.” 이 말에 윈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지구를 구하고 나서 쉬면 되잖아?”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는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용감한 지구 수호대가 있고 또 훌륭한 스승님의 인도가 있는데, 어떻게 지구를 구하는 일이 성공하지 않겠는🌻!

오스트리아 호반 봄철 모임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오스트리아에서 선행사가 열린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신의 축복 속에 유럽과 아프리카 각지의 많은 사형사자들이 선행사 장소로 앞다투어 달려왔다.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청소와 장식 일을 시작하고 주차장에 식사 구역으로 쓰일 큰 천막을 설치했다. 이 장엄한 모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스승님이 실제 선행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나타나신 것이다!

스승님은 짧은 휴식을 취하신 후 우리에게 더 놀랍고 기쁜 선물을 안겨 주셨다. 우리 모두를 명상 홀로 초대하여 이른 만남을 가지신 것이다. 우리가 감격해할 시간도 없이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스승님이 벌써 방안에 나타나셔서 모두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주셨다. 스승님은 좀 피곤해 보이고 기침도 하셨지만 활기에 넘치셨다. 스승님은 호주머니에 사탕과 과자를 잔

뜩 집어넣으시곤 우리가 좋은 소식과 이야기를 보고하면 상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다. 동수들은 개인적인 경험과 세상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사형은 무료 에너지 장치와 UFO 형태의 비행 접시를 개발한 영국의 천재 과학자 이야기를 했다. 그 과학자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느커녕 수년간 부당한 대



우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병마와 싸우고 청각을 잃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끈질긴 발명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스승님은 큰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셨다. 스승님은 과학자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며, 그들은 이 세상의 매우 귀한 존재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한 사저는 어떤 중국 과학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에이즈 생물 치료법'을 발견했는데, 이 치료법은 에이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과학자가 세계의 모든 에이즈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마음먹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준다는 말을 들으신 스승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이런 과학자들은 우리를 돕고자 지구에 내려 온 보살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외 음식 없이 영적인 에너지만으로 살아가는 기술을 알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

스승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사탕을 나눠 주신 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인 약 25억 명이 현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 주셨다. 최근에는 스승님의 시 '아기 돼지의 딸' 방송 하나만으로 13만 명이 영원히 채식인이 되었으며, 그들의 영향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승님은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안 된다고 하시며 2년은 104주, 730일이라는 계산까지 하시면서 강력하게 촉구하셨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 모두들 가능하면 세속의 일을 내려놓고 좀더 많은 시간을 '수프림 마스터 TV' 일과 나사(NASA) 소식 전파, 'SOS' 전단 배포, 그리고 채식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헌신하라고 당부하셨다. 스승님은 모든 동수들에게 채식을 보급하는 데 각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며 자신의 집을 작은 '채식 식당'으로 바꾸어 사람들을 초대해 채식 요리법을 선보이고, 채식이 얼마나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지 체험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길에서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면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하면 된다고 하셨다. 스승님은 전세계가 즉각 육식을 금하고 나무를 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이 지구를 구해내길 정말로 희망하셨다. 스승님의 말씀이 끝난 뒤, 전문 오페라 가수인 사형이 스승님의 피곤함을 좀 풀어 드리기 위해 아름다운 이탈리아 오페라 노래를 불러서 스승님께 큰 칭찬을 받았다.


2월 29일이 되자 더 많은 사형사저들이 도착했다. 모두들 조용히 명상하며 스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스승님은 몸이 너무나도 편찮으셔서 온종일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다. 스승님의 방에서 들리는 끊임없는 기침 소리가 온 건물에 울리고 우리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스승님이 어서 회복되시기를 신실하게 기도했다. 저녁 무렵, 스승님은 우리 모두를 방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조용히 줄을 서서 스승님의 방으로 들어 갔다.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스승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리고 거의 하는 일도 없이 얼마나 광대한 신의 사랑을 목격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다음날에도 스승님은 대부분 방에서 휴양하셨고, 저녁이 되어서야 명상 홀로 들어오셨다. 스승님은



잠깐 계시다가 방으로 돌아가 쉬어야 했지만, 우리와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스승님은 떠나시기 전, 당신이 20대에 지으신 ‘아기 돼지의 말’이라는 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읽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선행사 마지막 날, 스승님은 오후에 명상 홀로 오셔서 우리에게 수피교 성자 나스루딘(Nasrudin)에 대한 이야기와 농담을 들려주셨다. 선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쉽 없이 스승님이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며 기도드렸다. 스승님의 건강이 그때까지도 그리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형사자들은 신의 무한한 축복을 안고 사랑하는 이들과 스승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 늦지 않게 아름다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좋은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몇몇 동수들은 떠나기 전에 아름답고 조용한 호수 주변을 산책하면서 우리와 함께 신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작은 동물들과 오리, 소나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사랑하는 스승님을 다시 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이런 중요한 때에 스승님의 시기적절한 충고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신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 스스로 더 많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스승님의 사랑을 인류 동포와 동물 친구들 모두에게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제때에 지구의 기후 상황을 되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스승님의 농담



축가 기도

칭하이 무상사/ 2007. 8. 25. 프랑스 파리 선삼 (원문 영어)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소녀가 성경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뛰어가고 있었어요. 소녀는 달리면서 기도했지요. “오, 주님. 제발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각하지 않게 해 주세요!”

소녀는 달리면서 기도하느라고 주위를 살피지 못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옷이 흙투성이가 되어 더러워졌지요. 소녀는 벌떡 일어나 옷을 대충 털고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님. 제발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밀지는 마세요!” 





기후변화의 해결책

칭하이 무상사/ 2008. 2. 28. 오스트리아 유럽 선행사 (원문 영어)

아무도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채식을 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보다 얼마나 더 간단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가 다 그것을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은 문제의 긴박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중매체 중에서 이에 대해 TV로 방송하는 건 우리가 유일하거나 극소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이에 관해 자주 방송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의 유일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해결책에 관한 많은 정보도 제공합니다. 날마다 대대적으로 보도하지요. 기후변화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10분이나 20분씩 방송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우리는 어떤 기부금이나 광고비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건 없이 돕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몇 세기가 남은 듯이 여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방법도 이렇게 간단합니다. 정부와 대중매체가 함께 뛰어들어 서로 도와가며 모든 소식을 전파하고 대중들에게 “상황이 정말 급박합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합니다.”라고 알린다면 우리에게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2년입니다. 예, 짧은 하지만 지구를 현 상태로 유지할 시간이 있는 셈입니다. 이전만큼 좋진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 정도는 될 겁니다. 더 심해지진 않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

고기를 얻기 위한 동물 사육을 멈추자

우리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정말 이것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돈도 많고 뭐든 지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지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합니다. 전단, 세미나 등 모든 것이 이를 위한 것이지요. 바로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느려요. 그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인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알려야 합니다. 흡연을 금지하는 것처럼요. 금지시키니까 됐잖아요. 정부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담배를 금한다고 하니깐 금지됐고, 마약도 금지하니깐 금지됐습니다. 불법이 됐지**

NO MORE KILLING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요, 현재 흡연이 줄어드니까 세계 곳곳의 많은 질병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기후변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것임을 알면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럼 아주 빠릅니다. 즉시 회복되거나 아니면 악화되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나 가축을 기르지 않는다면 지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 사육으로 인한 온실가스나 메탄이 없을 것이고, 계속 증가하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이미 키우고 있는 건 그대로 두면 됩니다. 더 이상 이윤과 고기를 위해 사육하지만 않으면 지구는 회복될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 소들이 자연스럽게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모든 땅에 나무와 채소를 심을 수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면 50년이 지나도 그 땅을 경작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동물들에게 밟혀서 딱딱해지고 지력(地力)이 상실되니까요. 또 육식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쁜 업장을 만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메탄 가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우리는 온갖 조짐과 증거들을 방송합니다. 세상에! 이것 말고 말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지금 유일하게 중요한 건 이 일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지요. 살아남지 못하고, 지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면요. 그것이 그들의 결정이라면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소식을 전하고 전단을 나눠 주는 등의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호주머니를 털어 신문에 광고를 내고 TV로 방송을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

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들은 “아, 맞아요!” 하며 흥미를 갖고 알고 싶어합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얼마 후엔 잊어버릴 겁니다. 봐야 할 TV가 있고 즐겨야 할 영화가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돌볼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혹은 사업을 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면 재산은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

윌 스미스(Will Smith)의 ‘나는 전설이다(I Am Lege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도시는 변종 인간들에게 점거를 당하는데, 그들은 병에 걸려 사악한 짐승과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된 상태였습니다. 주인공은 뉴욕 시에서 유일하게 살아 있는 정상인입니다. 모든 곳이 황폐해



지고 돌연변이가 된 사악한 동물과 사악한 인간들로 가득합니다. 주인공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자 온 바닥에 돈이 깔려 있고 은행 금고는 금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정말 쓸모 없고도 웃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가 돈더미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메시지의 핵심을 찌르는 장면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그저 오락거리로만 여깁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다면 뭔가 했을 겁니다. 그들이 죽고 사는 데에 개의치 않는 게 아니라면요. 그것도 나한테는 괜찮아요. 혹은 자기 아이들을 고의로 죽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금 자기 행동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다니 말이지요!

그래서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적어도



LOVE GLOBE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단을 나눠 주는 등 모든 일을 하고 있지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린 그저 그렇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것보단 낫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명상하고,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을 돕고, 전단을 나눠 주며 누구라도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뭔가 해야 합니다. 만일을 위해 북극에 씨앗을 저장해 두지만 말고요. 사방이 독가스로 차고 사람들이 모두 죽어 가거나 병에 걸리는데, 종자를 저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먹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걸 먹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많이 저장한다 해도 소수만 먹을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만 거기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인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씨앗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다시 심는 등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부유하건 가난하건 재앙이 닥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 해도 살아남을지 어떨지, 또 살아남는다 해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온 행성이 파괴되고 오염된다면 씨앗과 돈, 권력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혹은 대다수가 죽는다면, 그들이 노동력인데 누가 여러분을 위해 씨앗을 심어 주겠습니까? 길을 청소하고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리는 것은 노동자, 농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우리는 계속 전단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요. 여

러분도 이런 기분을 이해할 겁니다.

이미 곳곳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조금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가 이 일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는 있으니까요. 최근 여기저기서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유엔 보고서에 따라 모두들 육식과 축산이 기후변화 혹은 지구 온난화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심지어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새로운 에너지, 바이오 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 압축 공기 자동차, 탄소 흡입기, 혹은 구멍을 파서 탄소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언젠가 터져 나오지 않을 것처럼요. 하지만 그전에 이미 그걸 들이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 여기지요.

고기를 내려놓는 것이 인류 생존의 관건이다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고기 한 조각을 내려놓고 두부 한 조각으로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더 영양가 있고 건강에도 더 좋고 더 경제적인데, 왜 사람들은 약간의 입맛도 희생하지 못하는 걸까요? 설령 고기가 그토록 맛있고 고기 먹는 걸 무척이나 좋아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과 자기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지 못하지요? 그냥 고기 한 조각을 두부 한 조각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



NO MORE KILLING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다. 그뿐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온갖 종류의 채식 고기가 있습니다. 맛도 좋아요. 콩고기라 해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맛도 같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맛있었습니다. 아주 맛있고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일 죽건 말건, 자기 아이들이 고통을 받건 말건 여전히 고기 한 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 전에 정신적·육체적·심리적·감정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가스가 이미 공기 중에 퍼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에 관해 의견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가스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진작부터 연구를 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정신 질환과 더 많은 내부 장기 손상 등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방에 증거가 깔렸는데도 아무도 귀 기울이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린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우린 행복하게 죽을 겁니다.

우리가 달리 어딜 가겠어요? 도처에서 가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지 아직은 그리 심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곳을 지날 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픈지, 왜 갑자기 심장이 아프고 답답한지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 어째서 간이 안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냥 약을 먹고는 그것에 대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지구는 끝장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할 건가요? 의견 있나요? '이제는 행동할 때'란 말이 순식간에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나요? 전에

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두 함께 일하고, 그리고 충분히 빨리 하길 바랍니다. 정부와 대중매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날마다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것을 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고기, 동물성이 안 들어간 식사를 하고 무한한 태양열이나 파력(波力)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도 말고 몇 그루씩만 심으면 돼요. 그리고 정부는 전쟁에 돈을 쓰는 대신 그 돈으로 사막이나 건조한 기후, 혹은 이미 손상된 지역에 나무를 심게 해서 맑은 공기를 되살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우리 역시 기꺼이 언제든지 밖에 나가 나무 심는 일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이 모든 사업을 지지하기만 하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곳곳을 찾아가 채식 요리를 해주거나 자기 집에서 사람들에게 만드는 법을 보여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채식 요리 만드는 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여 준다면, 몇 주 후에는 그들도 요리할 줄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내 말은, 정부와 매체가 진정으로 지지하려면 그들이 고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희생일지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평생에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아니까요. 고기 조각을 내려놓고 채식 고기로 대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먹을 음식은 아주 많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모든 가정을 채식 식당으로 만들자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





LOVE GLOBE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채식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채식 요리 하는 법을 보여 주십시오. 직접 보여 주세요. 그렇지 않고 TV로만 본다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에너지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시범을 보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널리 알리고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지구를 구하는 데 시간을 내세요. 그들에게 채식 요리 만드는 법을 보여 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집이 모두 채식 식당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먹는지 알려주세요. 채식이 뭔지 모른다면 어떻게 만드는데도 모를 겁니다. 정말 그들은 모릅니다. 채식이 좋다는 건 알아도 어떻게 하는 줄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 “어떻게 만들었나요?” 하고 묻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이들은 여태까지 채식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겁니다. 전세계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 시간이 나는 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조건적으로, 기회 되는 대로 사람들을 손님으로 초대해 채식 요리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미소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말을 걸고 커피 마시러 오라고 집으로 초대하세요. “전 근처에 살아요! 이렇게 멋진 이웃이 있는지 몰랐네요. 와, 영광이에요!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하세요!” 그런 다음 가르쳐 주세요.

시작해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세요. 여러분은 밖에 있잖아요. 나는 ‘수프림 마스터 TV’에서 요리를 만들고 개들에게 만들어 먹입니다. 나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채식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난 지구를 구하는 일로도 매우 바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십시오. 식당 주인이나 사장이 되세요. 요리 잘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의 미소라든가 돌도 녹을 겁니다. 여러분의 음식이라면 마음이 녹을 겁니다. 밀쳐야 본전이지요. 채식**

은 매우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 건 괜찮은 투자입니다. 지구를 구하니까요. 그러니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나 전단, 책,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영향력이 아주 큼니다. 그렇긴 해도 습관이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 주세요. 누구라도 초대해서 채식 음식을 보여 주고 환대해 주세요. 평소처럼 하면 됩니다. 촛불을 켜거나 하는 거지요.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즐거운 분위기로 환대하고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면 다음에 또 먹으러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만들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채식 요리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채식이라고 하면 그저 줄콩 같은 녹색 콩을 먹는 걸로 여기고 줄처럼 될까 봐 걱정합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 채식을 한다고요! 채식으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먹어도 영양이 충분한가요?” 그들은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들은 채식에 대해 연구해 본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이로운을 위해 모든 육식을 금지하자

난 정말 살아 있는 동안에 정부가 육식을 금지시키



NO MORE KILLING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는 날이 오는 걸 보고 싶습니다. 고기도 국민들에게 해로우니까요. 그것이 메탄이나 폐기물 가스를 배출한다거나 에너지나 물, 약품을 대량 소모시킨다는 말은 언급할 것도 없이 고기는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고기엔 독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얘기지요. 국민의 지도자라면 국민을 보호하게끔 도와야 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독이 된다는 걸 안다면 그것을 고의로 아이들에게 먹여 죽게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현재 모든 증거들이 고기도 유독하고 술도 나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유독한 것을 국민들에게 줘서는 안 되니까요. 그것들을 국민들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아이들까지 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식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에게 채식 요리를 만들고 채식하는 방법을 보여 줌으로써 육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바꿀 시간이 2년밖에 없습니다. 2년입니다. 일이 일어나는 건 4년이지만 우리는 2년 안에 뭔가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터질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대중: 예.) 2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청중: 매우 급방입니다.

스승님: 700여 일 정도입니다. 104주요. 1년이 52주니까 2년이면 104주밖에 안 됩니다. 1-0-4주! 이게 우리에게 있는 시간의 전부입니다. 이해합니까? 그게 긴 것 같나요?

청중: 아닙니다!

스승님: 짧지요. 2년이라고 하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700일, 104주밖에 안 됩니다. 매우 겁나는 숫자지요. 예,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직접

나서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합니다. 죽을 때는 죽더라도 지금은 뭔가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육식의 위험을 알리고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 일생의 사명으로 삼으세요.

육식은 정말 우리 지구에 좋지 않습니다. 고기가 나쁜 겁니다. 고기가 원인이지, 사람들이 원인인 게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이런 상황의 불쌍한 희생자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큰 자비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야 합니다.

동수: ‘애니멀 에이드(Animal Aid)’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들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사람들을 훈련시키거나 혹은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학교를 소개해 주면 우리는 적당한 연령층을 택해서 강연할 수 있습니다. 한 사형은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지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예, 그런 걸 할 수 있겠군요.

동수: 채식이나 기후변화,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 예, 자원해서 학교로 찾아가 그날 무료 채식 요리를 해주거나 시식회를 열어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채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각자 당근 몇 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동수: 아이들은 동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아이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스승님: 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전체 토론 실황을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veg/video/BMD548_554-e.php



지구를 구하자

꼭 읽어야 할 책

6도의 변화: 더워진 지구의 미래

지구 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우리는
멸종될 수도 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환경 문제 방송 해설자인 마크 라이너스(Mark Lynas) 씨는 3년에 걸쳐 5대륙을 여행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목격했다. 알래스카 툰드라 지역의 해빙에서부터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Tuvalu)가 바다에 가라앉는 상황, 나날이 넓어지는 내몽골 불모 지대, 사라지는 페루 열대 산악 빙하, 중국의 홍수와 폭풍우로 인한 토양 침식에 이르기까지 라이너스 씨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기후변화를 다룬 저서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High Tide: The Truth About Our Climate Crisis)』에 수록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라이너스 씨는 화석연료 위주의 생활 방식이 기후와 환경,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 증거와 이론적 근거를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관한 충격적인 두 번째 저서 『6도의 변화: 더워진 지구의 미래(Six Degrees: Our Future On a Hotter Planet)』를 출간해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리기 전까지 옥스퍼드 대학 래드클리프 과학 도서관에서 몇 달 동안 동료평가를 받은 수천 편의 과학 논문을 읽었다.

이 두 번째 책에서 그는 과학 연구와 첨단 컴퓨터 모델링에서 수집된 자료와 지구 역사상 나타난 고기후의 발견을 바탕으로 하여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후가 한층 더워진 미래의 상황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과거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극적인 기후변화 시대를 검토하여 온난화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환경에 미칠 무서운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한다.

『6도의 변화』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2001년에 제출한 ‘제3차 평가 보고서’(http://www.ipcc.ch)에 맞추어 서술하는 방식을 따랐는데, 매 1°C를 한 장(章)으로 하여 온도 1°C 상승이 지구와 지구의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싹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C 상승에서부터 ‘임계점(tipping point)’이 되는 3°C, 인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체의 멸종을 가져오는 6°C 상승까지, 이런 대재앙이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지구를 구하자

1
2
3
4
5
6

이 지구를 위협에 빠뜨린 우리가 즉시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이 지구를 잃게 될 것이다.

섭씨 1도 상승

온도가 1°C 올라가면 반 년만에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통상적으로 허리케인이 없는 남대서양 연안이 허리케인의 내습을 받는다. 미국 서부에 극심한 장기적 가뭄이 발생한다.

섭씨 2도 상승

빙하가 점차 녹아 없어지면서 북극곰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산호초도 점점 사라진다. 지구의 해수면이 7미터 상승한다.

섭씨 3도 상승

아마존 열대우림이 점점 사라지고 극심한 엘니뇨 기후 이변 현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유럽은 과거에는 거의 없던 극심한 여름 열파를 반복적으로 겪는다. 수천만 혹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열대 지역에서 중위도 지역으로 이주한다.

섭씨 4도 상승

해수면이 상승해 연안 도시가 물에 잠긴다. 빙하의 소멸로 많은 지역에 깨끗한 물이 부족해진다. 남극 대륙의 일부가 붕괴되어 해수면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영국 여름 기온이 섭씨 45도가 된다.

섭씨 5도 상승

사람이 살 수 없는 지대가 확산되고 대도시 용수 공급원인 설원과 대수층(帶水層)이 고갈되어 수백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인류 문명은 이러한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파괴될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 받을 것이다. 양극 지방에는 더 이상 얼음이 존재하지 않고 이와 함께 해양생물이 대량 멸종하고 대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해 연안 지구를 파괴할 것이다.

섭씨 6도 상승

온도가 6도 올라가면 95%에 달하는 생물이 멸종될 것이며, 살아남은 생물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폭풍과 홍수를 겪게 된다. 황화수소와 메탄으로 인한 화재가 불시에 발생한다. 이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원자폭탄과도 같다. 박테리아 외에는 어떤 생명체도 생존하지 못한다. 이른바 '지구 최후의 날'의 시나리오가 상연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 생태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실상은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슬한 예언들은 사람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지구를 구하자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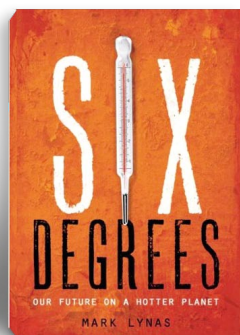
있다. 라이너스 씨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서 실상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부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실제로 어떤 예언들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이미 여름 열파가 시작되어 인류의 건강, 특히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워진 날씨는 국지적으로 말라리아와 다른 질병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중국의 빙하가 매년 7%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빙하에서 용수를 얻는 3억 인구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도 로하차라 섬(Lohachara Island)은 급속도로 녹는 빙하로 완전히 물에 잠겨 주민 7만 명이 강제 이주해야 했으며, 2000년에는 파푸아뉴기니 요크공작 섬(Duke of York Island)의 저지대 주민 2만 명도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주해야 했다. 이처럼 미묘하게 서로 연결된 생태·사회 체계 안에서, 지구의 온도 상승은 연쇄 작용을 일으켜 식량과 물이 부족해지고 그와 함께 더욱더 많은 기후 난민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라이너스 씨가 독자들에게 지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명백하고도 분명한 경고를 보내면서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듯’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대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이제 이 ‘불’이 인간과 관련된 활동으로 야기되었으며 이론적인 분석을 근거로 볼 때 온실가스 방출로 유발된 온도 상승이 최고점인 ‘6도’에 도달하기까지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알려진 이상,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현재 2도의 단계에 다가가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신속하게 행동하여 탄소와 메탄가스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표: 탄소 방출량과 기온 상승 *

도수 변화	섭씨 온도 변화	CO ₂ 농도 지표
1도	0.1-1.0°C	350ppm(현재 수준 380ppm)
2도	1.1-2.0°C	400ppm
3도	2.1-3.0°C	450ppm
4도	3.1-4.0°C	550ppm
5도	4.1-5.0°C	650ppm
6도	5.1-5.8°C	800ppm

*표 출처: 『6도의 변화: 더워진 지구의 미래』 279 쪽



『6도의 변화』는 지구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정치 지도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탄소와, 메탄과 같은 다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경종이다. 현재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책임이 인류 활동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채식(비건)과 같은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상호 연관된 생활 방식을 채택해 지구를 구해야 한다. 되돌릴 시간은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 지구 온난화는 현실이며,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과 연관된 문제이다. 그러니 지금 즉시 행동을 취하여 지구 온도를 낮추자. 🌸

참고:

http://www.opendemocracy.net/arts/mark_lynas_4470.jsp

http://www.suprememastertv.com/bbs/board.php?bo_table=sos&wr_id=58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변화: 더워진 지구의 미래』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22일, 청년 극단 '니콜라이 비네브(Nikolai Binev)'와 문화·예술·오락 웹사이트 www.kafene.bg가 주관하는 월레 시 창작 대회 '시의 커피숍(Poetry Coffee Shop)'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렸다. 3월 대회는 3월 21일 '국제 시의 날'과 3월 22일 춘분을 맞이해 '녹색(Green)'이라는 주제를 택했다. 이달의 최우수상은 주제인 '녹색'을 생태와 채식으로 풀이한 이벤토 롤로바(Ivette Lolova) 사저의 '생태(Ecological)'라는 시에 돌아갔다. 행사가 끝난 후 사저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여성 인터넷 잡지 『나, 여자(Me, the Woman)』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보도가 나간 뒤 대중으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생태

이벤토 롤로바 사저 / 불가리아 (원문 불가리아어)

사람들은 어딘가로 서둘러 간다..... 그저 습관적으로,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차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저 습관적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잔인하고 무참하게 그들을 죽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맛있게 그들을 요리해 먹고..... 그저 습관적으로,
 그런 후엔 자꾸 병에 걸린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들은 결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습관적으로,
 이것이 자기네 삶을 산산조각낸다는 것을..... 그저 습관적으로,
 그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죽어 간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을
 그들은 우리 행성도 죽인다..... 그저 습관적으로.



지구 시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뉴스 정리 (원문 영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3월 29일의 ‘지구 시간(Earth Hour)’은 환경 의식을 일깨우는 동시대 최대 규모의 전 지구적 행사 가운데 하나로써, 전 세계 도시와 지역 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전등을 끈다. 모든 참가 지역의 수천 수백만 가정과 정부 기관·학교·기업 등 단체가 이 행사에 동참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에 의해 발기된 ‘지구 시간’은 2007년에 처음 거행되었다. 당시에는 호주의 몇몇 주요 도시들만 참여했지만 올해는 많은 나라에서 거행되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각국 특파원들은 호주·뉴질랜드·코스타리카·영국·미국·홍콩·포모사·한국·싱가포르·캐나다·태국 등 여러 국가의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세계자연보호기금 미국 지부 대변인인 댄 포먼(Dan Forman) 씨는 인터뷰에서 ‘지구 시간’이 정부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다고 말했다. “‘지구 시간’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명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영향을 막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수백만 참가자들이 전등을 켜고 있을 때, 그들은 단 한 시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그저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은 전등을 끄는 것이며,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채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호주 퀸즐랜드 주의 앤드류 바틀릿(Andrew Bartlett) 상원의원은 전등과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는 것에 찬성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와 유제품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더 쉽고 더 싸고



더 즉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채식이 건강과 환경에 유익하다는 것은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당장 실천할 수 있으므로 신기술이나 더 나은 대중교통 수단, 재생 에너지의 출현 같은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채식을 하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어떤 지속적인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버틀렛 의원은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모든 교통수단의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고 발표한 유엔 보고서 ‘가축의 긴 그림자’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정부나 기술,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리며 계속 뒷짐지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류가 동물성 제품 소비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중대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에너지 산업 분야에도 확산되었다. 남한 대부분의 발전소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기술공사도 ‘지구 시간’ 행사에 참여했다. 이 회사의 감사인 김행영 씨는 “현대 생활의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배출된 대량의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도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육식을 끊고 채식을 시작한다면 육류 소비가 감소하여 축산업이 쇠퇴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온



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세계자연보호기금 태국 지부장인 윌리엄 스카에들라(William Schaedla) 박사도 정곡을 찌르는 발언을 했다. “정부가 이것을 지지하고 국민들과 협력해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하고 대중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세계적인 행사인 ‘지구 시간’에서 영감을 받아 전세계 각국 정부와 에너지 회사, 시민들이 일치 단결해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한다.

2008년 ‘지구 시간’은 1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징성을 통해 서둘러 지구를 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단 60분의 활동이었지만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자원 보존적인 채식을 채택함으로써 ‘지구 시간’의 메시지가 우리 일상생활에 실현되길 바란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지구 시간’ 특별 보도를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NEWS561-564.php>

참조: <http://www.earthhour.org>





“불가능은 없다. 마음 상태가 그렇게 만들 뿐이다.”

~존 로이 로버트 설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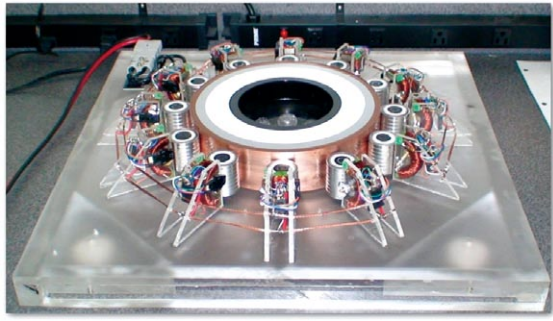
세상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한 일생의 꿈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영감이 넘친다. 천재적이다. 비전이 있다. 이 표현들은 사람들이 ‘설 효과 발전기(Searl-Effect Generator, SEG)’를 발명한 사람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많은 단어 가운데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존 설(John Searl) 교수의 놀라운 기술적 공헌은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모든 형태의 교통 수단에 혁명을 일으키고 전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32년 5월 2일 영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존의 유년기 생활은 훗날 많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실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겪어 그의 빛나는 천재성은 발굴되기를 기다린 채 가려졌다.

존은 네 살 반이 되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짝을 맞춰 꾸곤 했다. 이런 꿈은 6년 동안 일 년에 두 번씩 나타나 건축에 관한 지시를 존의 흡



설 효과 발전기(전시용 모델).

수력 강한 어린 두뇌에 세세히 전달했다.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개인 지도’의 메시지를 이해한 설은 열네 살 때 최초의 ‘설 효과 발전기’를 제작하면서 그 꿈을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이 장치는 동심원 형태의 3개의 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종류의 재질로 된 각 링은 동심원을 이루며 서로 붙어 있으며 기반에 고정되어 있다. 각 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링을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는 롤러로서 가장 안쪽에 있는 링에는 12개, 가운데 링에는 22개, 가장 바깥에 있는 링에는 32개가 배열되어 있다. 바깥에 있는 롤러는 코일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코일은 이 장치에 전류 교류(AC)나 전류 직류(DC)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배치 구조와 연결돼 있다.

SEG는 동력 공급이 필요 없는 발전기이다. 즉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수집하는 장치인 것이다. SEG 롤러가 SEG 링에 가까이 접근할 때 설 효과의 공명 자기장이 주변 환경 속에 있는 음이온과 전자를 발생시켜 이 기기로 끌어당기고 다시 기기를 통해 가속화시킨다. 강력한 전자 흡인력을 가진 희토류 원소인 네오디뮴(neodymium)이 이 과정을 촉진시킨다. SEG의 독특한 기계 장치와 재질 배합 때문에 네오디뮴이 끊임없이 잉여 전자를 방출하고 대체하여 전기력이나 기계력,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한다.

첫 번째 SEG를 만든 어린 설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웨일즈인 친구 앞에서 작동 시범을 보였을 때, 발전기의 원반과 롤러가 즉시 가속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이르자 장치가 중력을 이기고 날아올라 천정을 뚫고 날아가 버렸다! SEG의 비행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이에 열광한 친구는 설이 이 장치를 더욱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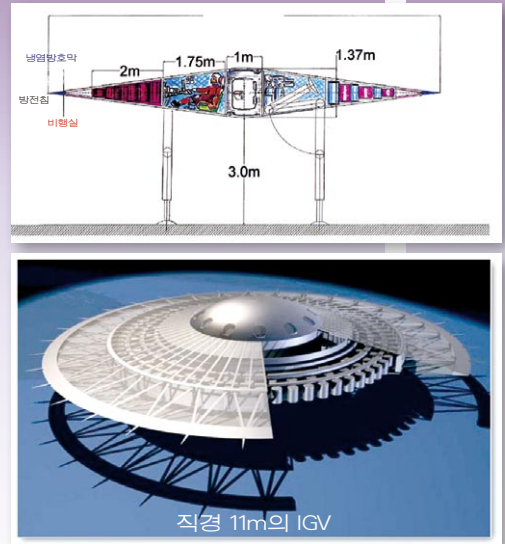
개발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존은 이 기계의 비행 능력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계를 ‘잃고’ 말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장치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SEG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65년에 이르러 설은 SEG 기술을 결합시킨 비행 접시, 혹은 ‘반중력 비행 기기(IGV: Inverse Gravity Vehicle)’를 제작해 부상시켰다. IGV는 어떤 크기로도 만들 수 있으며, 영국에서 일본까지 시속 19,000km가 넘는 속도로 30분이면 갈 수 있다! 이 비행 접시는 물론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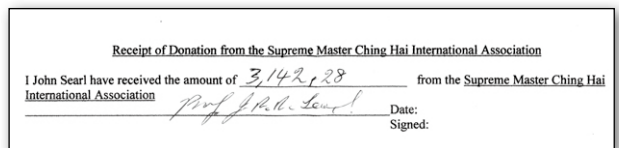
SEG는 전기로 작동되는 그 어떤 장치에도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 게다가 거의 공해가 없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연료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술을 채택한다면, 설 교수가 이 세상에 제공한 이 선물로 인해 우리는 공해가 거의 없는 환경과 더 맑은 하늘, 더 깨끗한 하천, 풍요로움을 되찾은 자연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육상 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우주 여행이 가능할 것이며, 전세계 모든 시민들은 저렴하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알레르기과 질병도 줄어들고 병이 나도 더 빨리 치료하고 회복하는 등 이것이 가져올 이로움은 무수히 많다.

2008년 2월 오스트리아 선행사 기간 중, 칭하이 무상사는 설 교수의 연구 성과와 그가 겪은 시련과 고통에 대해 들으시고, 그의 건강과 행복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셨다. 스승님은 그 자리에서 미화 7천 달러의 기부금과 설 박사가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편의를 제공하시는 등 아무 조건 없이 사랑 어린 지원을 베풀었다. 설 교수는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칭하이 무상사의 친절에 대해 “무척 감사드리며 그녀는 정말 놀라운 여인”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설 박사는 태국에 본부를 두고 SEG 제조를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설 효과 발전기’와 IGV 그 어떤 것도 아직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진 않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어찌 됐든 간에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계획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 교수의 일생을 다룬 비디오 ‘존 설 이야기(The John Searl story)’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



반중력 비행 기기(IGV).



스승님의 7천 달러 기부금에 대한 존 설 교수의 영수증.

존 설 교수와 ‘설 효과 발전기’, IGV 및 이 장치의 공개 발표회 예정 시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johnsearlstory.com/>
<http://swallowcommand.com/>
<http://www.searlsolution.com/>
<http://www.searleffect.com/>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세계 곳곳에서 인정 넘치는 행동과 신의 성스러운 사랑의 현시를 볼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일과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세상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더해 준다. 이러한 덕행을 표창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하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비롯한 일련의 상을 제정하였다. 귀감이 되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정부·단체, 자비롭고 용감한 동물 친구들에게 수여되는 이 상은 모든 존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그들의 훌륭한 이상에 대한 찬탄과 감사를 나타낸다. 하트 평점은 인류에게 모든 존재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도록 상기시키는 신의 사랑을 상징한다.



우루과이의 금연 정책 표창

아르헨티나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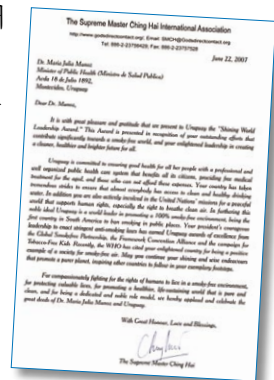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1일, 우루과이는 공공장소 및 직장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여러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담배 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현명한 정책을 선택한 우루과이 정부에게 칭하이 무상사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황금시대 5년 3월 27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Montevideo)에서 거행된 시상식에는 보건부 국장 조지 바소(Jorge Basso) 박사와 '흡연구제국가프로그람'의 위원장 윈스턴 아바스칼(Winston Abascal) 박사가 참석했다. 국제 협회 회원들은 보건부 장관인 마리아 줄리아 무노즈(Maria Julia Munoz) 박사에게 상을 수여하고 스승님의 최근 저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우리는 또 내빈들에게 온난화로 위기에 빠진 지구 상황을 알리는 SOS 비디오도 상영했다. 이 비디오를 본 무노즈 박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 7일에 모든 국가

를 초대해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신께서 우루과이 국민을 깨우치고 축복하셔서 국민들이 평화와 행복, 번영을 누리기를 기원하며, 또한 지혜와 사랑을 갖춘 더욱더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고귀한 본보기를 따르길 기도한다.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수상식 소식은 우루과이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presidencia.gub.uy/_web/fotos/2008/03/2008032705.htm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기금의 관대한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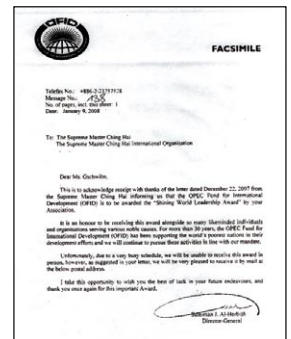
시상 뉴스 팀 (원문 영어)

석 유수출국기구(OPEC) 산하 국제개발기금(OFIG)이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유럽의 아홉 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미화 9,930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후 사이클론 시드르(Sidr)가 방글라데시를 강타했을 때에도 OFID는 다시 미화 50만 달러를 추가 기부해 현지 단체들을 통해 이 재민들에게 전달했다.

OFID를 통해 절실히 필요한 개발·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OPEC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표창하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는 이 단체에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OFID 이사장 술레이만 알 헤르비시(Suleiman J. Al-Herbish) 씨는 칭하이 무상사에게 보낸 감사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 형태의 고상한 이상에 헌신하고 있는 같은 뜻을 가진 많은 개인과 단체들과 나란히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OFID는 극빈 국가들의 개발 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우리에게 위탁된 임무로 여기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앞으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렇게 중요한 상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술레이만 알 헤르비시
OFID 이사장.



OFID의 각종 지원을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전체 보도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576.php>



빛나는 세계 정직상



정직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뉴스 팀 (원문 영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1월 6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제리 마이카(Jerry Mika) 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스튜디오에 초대해 칭하이 무상사가 보내신 대표를 통해 ‘빛나는 세계 정직상’과 미화 500달러의 부상을 수여하는 영광을 가졌다. 이 상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마이카 씨에게 잘못 발행한 미화 2,245,342달러짜리 수표를 돌려준 그의 훌륭한 덕행과 숭고하고 고결한 마음, 존경할 만한 행동을 표창하고자 수여되었다. 마이카 씨에게 있어서 수표를 돌려주는 일은 지극히 간단한 일이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좋은 방책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교육에 영향 받습니다.”라는 신념을 드러냈다. 수상 소감에서 마이카 씨는 스승님께 감사를 표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겸손과 친절, 그리고 이 상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저 자신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가 큼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들과 나눌 것이며 또한 당신과 당신이 하시는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카 씨는 ‘프로비던스 기금(Providence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네팔 셰르파인들을 돕고 있다. 최근 그는 미화 11,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모금해 셰르파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서 구입에 지원했다. 마이카 씨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조금만 희생해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한 변화가 더 많은 도움을 가져온다는 것도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요. 저는 이 아이들을 도울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결의를 하길 희망합니다.”

고귀한 정직함을 보여 준 마이카 씨의 빛나는 본보기에 감사드립니다! 네팔 셰르파인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그의 자비로운 노력에 천국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며, 그에게 최고의 축복을 기원한다! 🌸

이 독점 인터뷰를 다른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방송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548.php>



빛나는 세계 시민상



진정한 '청춘 아이콘'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사진 출처: <http://www.habitatforhumanityin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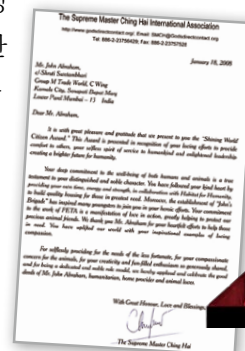


최 고의 모델이자 영화계의 떠오르는 별, 존 아브라함(John Abraham)은 젊은이들의 우상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채식주의로서 'PETA(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이기도 하다. 이 밖에 그는 국제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와 협력해 인도의 불우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다. 그는 또 '존 여단(John's Brigade)'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영웅적인 활동에 동참하도록 격려한다. 황금시대 4년(2007년), 이 단체는 인도 전역의 가난한 마을에 5천 채의 집을 지었으며, 2008년에는 8천 채 이상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려는 아브라함 씨의 사심 없는 노력과 동물에 대한 자비심을 표창하고자 그에게 '빛나는 세계 시민상'을 수여하였다.

상을 받은 뒤, 아브라함 씨는 스승님께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영광을 받게 되어 대단히 감격스럽고도 무척 송구합니다. 이 상을 아주 자랑스럽고 행복한 마음으로 보물처럼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람들과 자연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추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답인 셈이지요. 돈, 권력,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잘 되도록 축복했음을 알게 될 때 깊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 좀 읽어 봤습니다. 당 신께서 저를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다니 벽찬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몇 가지 신념을 가진 보통 사람일 뿐인데 말입니다. 당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빛나는 세계 시민'의 기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존 아브라함 씨의 모든 인도적인 노력과 동물에 대한 사랑에 감사 드린다. 그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모범으로서 정말 '빛나는 세계 시민'이라 불리고도 남는다. 🌸





빛나는 세계 영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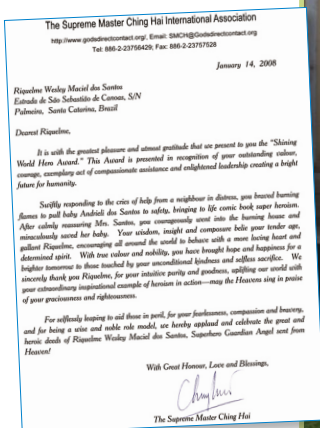
어린 소년의 비범한 행동

브라질 상파울루 뉴스그룹 (원문 포르투갈어)

리 켈메 웨슬레이 마시엘 도스 산토스(Riquelme Wesley Maciel dos Santos)는 브라질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주의 소도시인 팔메이라(Palmeira)에 살고 있는 다섯 살 된 소년이다. 어느 날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밖에서 놀고 있던 리켈메는 갑자기 이웃집이 불길에 휩싸이며 이웃인 루시엔느(Luciene)가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루시엔느의 22개월 된 아기 안드리엘르(Andriele)가 아직 집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리켈메는 루시엔느에게 달려가 그녀를 진정시키면서 자기가 아기를 구해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곤 집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고서 집 밖으로 무사히 데리고 나왔다. 그 불로 집은 다 타버렸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작은 소년의 비범한 행동을 들으신 스승님은 그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함으로써 그의 뛰어난 담력과 용기, 사랑을 표창하셨다.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8일, 상파울루 회원들은 리켈메에게 크리스탈 상패와 함께 스승님의 편지, 영웅 재킷, 책, 초콜릿, 장난감 등의 선물을 전달했다. 리켈메는 그중에서도 특히 영웅 재킷과 빛나는 상패를 좋아했다.

영웅적인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 준 리켈메에게 감사를 전한다. 스승님께서 수상 편지에 쓰신 대로 그는 정말 ‘천국에서 온 수호천사’임에 틀림없다! 🌸





빛나는 세계 영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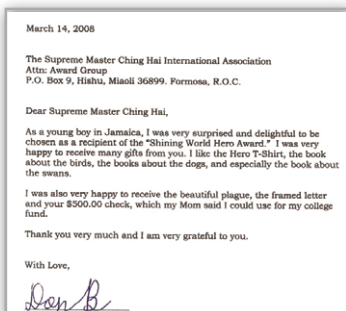
용감한 소년에게 경의를 표하다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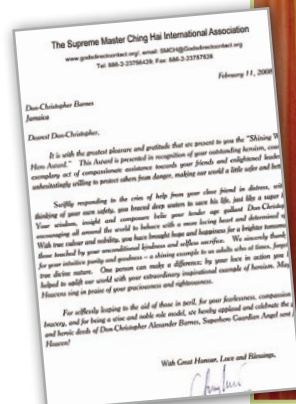
2007년 어느 날, 자메이카 킹스턴(Kingston)에 사는 아홉 살 소년 돈 크리스토퍼 바네스(Don-Christopher Barnes)는 수영장 근처에 있다가 친구 동생이 비명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달려가 보니 친구가 깊은 수영장 바닥에 등을 보인 채 가라앉아 있었다. 키가 3피트 8인치밖에 안 되는 돈은 처음엔 어른들의 도움을 청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겁내지 않고 즉시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친구를 수영장의 얕은 곳으로 끌고 나왔다. 돈은 이 용감무쌍한 공적으로 인해 학교와 지역 사회, 가족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았고, 자메이카 수상으로부터 ‘국가무공훈장’도 받았다.

이 소년의 용기와 자비로운 행동에 감동하신 스승님 또한 그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하셨다. 시상식은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8일, 플로리다 센터 동수 주최로 킹스턴의 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수들이 스승님의 편지를 낭독한 뒤, 미리 선물로 받은 영웅 티셔츠를 입은 돈이 앞으로 나와 액자에 담긴 스승님의 편지와 크리스털 상패, 미화 500달러 수표, 스승님의 멋진 책이 가득 담긴 선물 가방을 받았다. 이어서 돈은 손님들 앞에서 스승님께 보내는 편지를 읽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모두들 돈의 총명함과 차분함, 기쁨에 넘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동수들은 자메이카에 간 기회를 이용해 시상식 손님들에게 ‘SOS 지구 온난화’ 전단을 나눠 주었다. 전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친구와 친척, 직장 동료들과 나누겠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동수들에게는 돈 크리스토퍼 바네스 소년의 영웅적인 행동을 표창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 🌸



돈 크리스토퍼 바네스의 감사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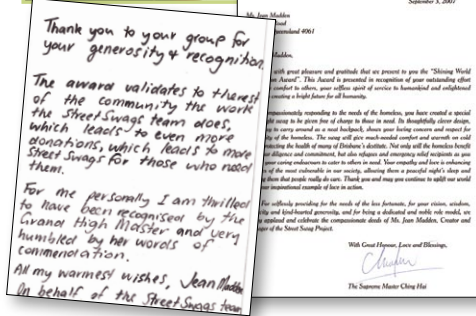


빛나는 세계 자비상



집없는 이들을 위한 노숙용 침낭을 만든 디자이너

제럴드 비숍 사형 / 호주 브리즈번 (원문 영어)



‘휴’ 대품 보따리(swag)’는 호주 양치기(미국의 카우보이와 비슷함)들이 외진 곳에서 야영할 때 사용하는 방수 침낭과 매트리스이다. 말 등에 얹거나 4륜 자동차에 싣고 다니기에는 편리하지만 사람이 들고 다니기엔 부피가 꽤 크다.

브리즈번의 한 학교 교사인 진 매든(Jean Madden)은 그 지역 노숙자들이 자선 원조도 받지 못한 채 도시 외곽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얇고 휴대하기 편리한 침낭을 디자인했다. 진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시제품을 만들고 ‘노숙용 침낭(Street Swag)’이라 이름 붙였다. 이 침낭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가방처럼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어

서 사용자들이 조금이나마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황금시대 2년(2005년), 브리즈번의 한 교도소 재소자들이 제작한 ‘노숙용 침낭’ 수천 개가 이 도시 노숙자들에게 전해졌다.



인류에 대한 진 매든의 사심 없는 봉사 정신과 창의력, 착한 마음씨를 표창하고자 2007년 10월 브리즈번 회원들이 그녀에게 칭하이 무상사가 수여하는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전달했다. 매든 여사는

상을 받고 뒤편이 기뻐하면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 그저 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노숙용 침낭’ 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호주와 전세계의 노숙자들을 위해 이 침낭을 제작하고 있고 이재민들에게도 긴급 침구로 제공하고 있다. 🌸

‘노숙용 침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www.streetswags.org

이 시상식과 독점 인터뷰를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전체 방송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492.php>



빛나는 세계 자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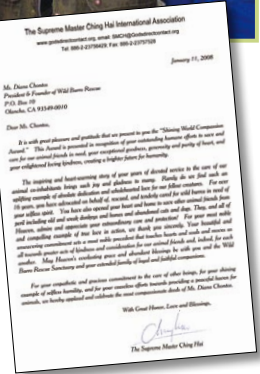
동물 천국의 창조자를 치하하다

미국 새너제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3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동수들은 올란차(Olancha)에 있는 '야생 당나귀 구조 보호 구역(Wild Burro Rescue Sanctuary)' 설립자인 다이아나 콘토스(Diana Chontos) 여사에게 스승님과 협회를 대신해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했다.

1991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사는 야생 당나귀들이 인간과 가축용 수원(水源)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이 당나귀들을 몰살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은 콘토스 여사는 즉시 행동을 취했다. 이 동물들에 대한 자비심으로 그녀는 기금을 마련하고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전문가들을 고용해 인근 지역의 모든 야생 당나귀들과 들개, 늑대, 병든 야생마도 구해 냈다. (뉴스잡지 193호 참조)

꼬불꼬불한 산길을 5시간 넘게 운전한 끝에 20에이커 되는 보호 구역에 도착한 동수들은 콘토스 여사와 그녀가 입양한 놀랄 만큼 온순한 8마리의 들개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 동물들은 낯선 방문객들을 보고 짖기는커녕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어서 우리는 콘토스 여사에게 스승님께서 보내신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하고 5천 달러의 상금과 스승님의 DVD·CD·책도 전달했다. 콘토스 여사는 행복하고 감격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스승님께 가장 깊은 감사를 표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콘토스 여사와 직원들, 온순한 들개 모두 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채식으로 인해 그들의 자비로운 품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 틀림없다.



이번 방문은 동수들이 준비해 간 단란한 저녁 식사로 끝을 맺었다. 식사를 하면서 콘토스 여사와 직원들은 채식한 지 오래됐지만 이것이 여태껏 먹어본 최고의 식사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신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 담겨 있는 아주 맛있는 식사였기 때문이다. 콘토스 여사와 그녀의 팀이 창조한 멋진 동물 천국인 '야생 당나귀 구조 보호 구역'에 신의 은총이 계속되길 기원한다. 🌸



빛나는 세계 자비상



복권 가게 주인의 모범적인 자선

포모사 타이중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15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 협회 회원들은 타이중 시의 '희열복권점'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해 가게 주인인 린송보(林松柏) 씨에게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하며 사회에 대한 신실한 공헌과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고귀한 행동을 표창했다.

작년 12월, 린 씨의 복권 가게에서 1등 복권이 나왔다. 행운의 당첨자는 당첨금 일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린 씨에게도 6만 NT를 선물했다. 당첨자의 자선에 감동한 린 씨는 선물받은 6만 NT에다 자신의 돈을 보탠 10만 NT를 타이중 시 '가정복지센터'에 기부하여 불우한 가정의 아동들을 도왔다.

린송보 씨는 자신이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며 겸손하게 말하면서 매체의 관심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놀라워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발휘해 대응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계기가 되어 이 사회가 더욱더 화목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희열복권점의 주인
린송보 씨(왼쪽).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URL 주소를 참고하세요.
'이달의 수상자'를 비롯해 지난 수년간의 시상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gv/>



빛나는 세계 자비상

치료견 샘 ♥♥♥♥♥♥♥♥♥♥♥♥♥♥♥♥

미국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24일, 국제협회 오하이오 회원들은 그 지역 '사랑의 K-9' 단체에 소속된 '치료견' 샘(Sam)에게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했다. 샘은 도베르만 핀셔종으로 병원, 의료 보호 시설, 노인 건강관리 센터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환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샘은 상패 외에 칭하이 무상사가 주신 멋진 '해피도기 영웅 재킷' 및 별과 간식도 받았다. 샘의 보호자인 젤러(Zeller) 씨 부부는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등 영적 서적을 선물로 받았다. 젤러 씨는 채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사랑의 K-9' 회장인 캐티 코스텔로(Katie Costello) 씨는 샘이 상을 받은 모습을 보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리지(Ridge)에 있는 '브라이어필드 노인 센터(Senior Center Briarfield)' 활동부 부장인 모린 매카티(Maureen McCarty) 씨는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샘의 이 뜻깊은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샘이 기쁨과 평화, 사랑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이들과 샘에게 신의 축복이 가득 하길 기원한다. 🌸



빛나는 세계 영웅상

♥♥♥♥♥♥♥♥♥♥ 사람을 ‘깨우는’ 영웅-고귀한 영웅 위니

미국 인디애나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3월 15일 토요일, 인디애나와 오하이오 동수들은 인디애나 뉴캐슬(New Castle)로 가서 15살의 고양이 위니(Winnie)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했다. 위니의 가족과 친구들도 초대되어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해 영광을 수여하는 그 자리를 함께했다. 우리가 도착해서 위니에게 인사를 건네자 위니는 새된 목소리로 “하이(안녕!)”라고 대답했다. 나중에 우리는 위니가 정말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07년 3월 24일, 위니는 가족인 에릭·케시 키슬링(Eric and Cathy Keesling) 부부와 그들의 아들 마이클(Michael)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부터 구했다.

앞서 키슬링 부부는 지하실의 물을 퍼내기 위해 가스 펌프를 설치했는데, 어느 날 저녁 펌프가 고장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가 새기 시작해 집 전체로 퍼지게 되었다. 자

정이 지나서 위니는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채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로 올라가 앞발로 캐시의 귀를 쿵쿵 찌르며 큰소리로 야옹거리기 시작했다. 캐시 혼자만 깨어나고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다. 메스껍고 현기증이 나는 상태에서 그녀는 가까스로 911로 전화를 걸 수 있었고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위니의 끈질긴 경고 덕분에 가족 세 명 모두 구조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받은 위니는 자신이 ‘스타’가 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키슬링 부부도 칭하이 무상사의 선물과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동수들은 이 방문에서 위니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에릭은 15년 전에 아내가 아주 작고 허약한 모습의 갓 태어난 위니를 발견하던 날부터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위니에게 달리 특별한 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에릭과 캐시는 위니가 말을 한다고 대답했다. 우리도 벌써 위니의 인사를 받은 바 있는데, 우리가 그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다시 한 번 그녀의 특별한 말하는 능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위니가 야옹거리는 소리로 “바이(잘 가요!)”라고 말했던 것이다! 🌸



빛나는 세계 영웅상



충명하고 사랑 많은 반려

미국 일리노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9일 토요일, 일리노이 센터 동수들은 일리노이 이스트피오리아(East Peoria)로 가서 복서견과 래브라도 혼혈종인 행크(Hank)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했다. 보호소에 있던 행크는 2007년 12월, 인간 반려인 크리스티 짐머맨(Kristie Zimmerman)에게 입양되었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있던 날, 행크는 샤워할 준비를 하고 있던 크리스티의 수건을 물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평소대로 밖으로 달려가지 않고 크리스티의 두 달 된 아들 스티븐(Steven)이 누워 있는 곳 앞에도 수건을 떨어뜨렸다. 행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크리스티가 그를 뒤따라가 보니 아기가 호흡 곤란인 상태였다. 그녀는 즉시 911로 전화를 걸어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긴급 구호법을 실시해 스티븐의 기도를 막고 있던 섬유질을 제거했다. 행크의 기지와 시기적절한 보호가 아니었다면 어린 스티븐의 생명은 큰 위험에 처해졌을 것이다.

동수들은 크리스티의 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행크를 만나 보니 그의 아름다움과 영리함, 활기에 찬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행크는 집 안을 뛰어다닐 때조차 지역 TV 방송국인 '하이언뉴스(Hion News)'가 가져온 카메라 장비를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행크는 자기 사진이 박힌 '빛나는 세계 영웅상' 외에 스승님이 보내신 '해피도기' 옷 두 벌, '라이블리 도기 채식 개 사료' 한 포대, 갖가지 장난감, 엽록소가 함유된 채식 뼈다귀 한 포대를 선물로 받았다. 크리스티는 스승님의 출판물과 견본책자, 과자를 받았다.

'하이언뉴스'는 크리스티와 협회 회원을 인터뷰했는데, 기자는 '빛나는 세계 영웅상'과 우리 협회의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크리스티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한 행크에게 상을 주신 스승님께 감사하면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보호소에 있는 애완동물들을 입양해 구하는 일을 고려해 보도록 격려했다.

시상식은 스승님의 은총으로 충만했으며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 시상식을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전체 방송을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W537.php>





빛나는 세계 영웅상



충실하고 용감한 수호자

미국 새너제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투견 혼혈종인 마야(Maya)는 보호자인 안젤라 마르셀리노 (Angela Marcelino)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살고 있다. 작년 6월 17일, 마야는 폭력범으로부터 안젤라를 구한 공로로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받았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안젤라가 집에 막 도착해 현관문을 열던 순간 폭력 전과가 있는 어떤 사람이 공격해 왔다. 당시 안젤라의 아들 방에서 자고 있던 마야는 소란스런 소리를 듣자마자 문 쪽으로 달려가 침입자를 물기 시작했다. 마야의 재빠른 방어 행동에 침입자는 즉시 집을 떠났다. 그 일에 대해 안젤라는 이렇게 말한다. "전 가끔 마야를 끌어안을 때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곤 그녀에게 '네가 없으면 난 어찌지?'라고 묻지요."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24일, 협회 회원들은 마야의 용감한 행동을 표창하기 위해 마야의 집을 방문해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해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했다. 마야는 '영웅견 마야'라고 새겨진 상패와 함께 두 벌의 '해피도기' 옷을 받았으며 안젤라는 스승님의 책을 선물로 받았다. 안젤라는 마야를 대신해 마야의 고귀한 행동을 인정해 주신 칭하이 무상사의 관대함과 사랑 어린 친절에 감사를 표했다. 🌸





빛나는 세계 영웅상

충명한 충견 벨벳

미국 오리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10일, 오리건 센터 회원들은 벨벳(Velvet)이라는 이름의 개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함으로써 주인인 맷 브라이언트(Matt Bryant)와 그의 친구들을 구한 그녀의 영웅적인 공로를 표창했다. 2005년, 맷이 라스베이거스 외곽 사막을 여행하고 있을 때 유기견 벨벳이 아주 슬픈 표정으로 그의 차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이에 브라이언트 씨는 그녀를 오리건 포틀랜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이때부터 둘은 깊은 유대감을 쌓기 시작했다.

이 관계는 2008년 2월, 여지없이 드러났다. 당시 맷과 친구 세 명, 그리고 벨벳은 오리건의 후드 산(Mount Hood)을 등반하다 떨어졌다.

그들은 산속에서 뗏목까지 시리는 괴로운 밤을 지새야 했다. 그들은 구조되어 건강을 회복한 후, 자신들의 행운은 모두들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로써 힘을 북돋워주고 또 벨벳이 시기적절하게 자기 체온으로 보온을 유지해 준 덕분이라고 여겼다. 그 고통스런 시간 동안 맷은 벨벳을 안으려고 여러 번이나 가슴 쪽으로 오라고 불렀지만 벨벳은 고집스럽게도 그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나중에야 맷은 벨벳의 온기 덕분에 발가락이 동상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벨벳은 자신의 행동이 맷의 발을 보호하리란 것을 알았던 듯하다. 벨벳은 또 동행한 다른 두 친구의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몇 번이나 그들 몸 위에서 잠을 자곤 했다.

이런 충명하고 사랑 어린 행동으로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받은 벨벳은 스승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물들을 무척 좋아했다. 특히 벨벳을 위해 특별히 만든 '해피도기' 재킷을 아주 좋아했다. 그녀는 또 동수들이 준 채식 뼈다귀도 얼른 먹어 치웠다. 맷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스승님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고귀한 야생』을 받고 매우 감격하면서 이 책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브라보, 벨벳! 인류에 대한 그의 기민함과 헌신은 정말 놀랍기 그지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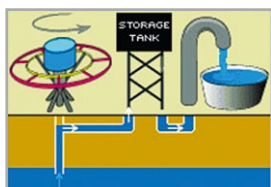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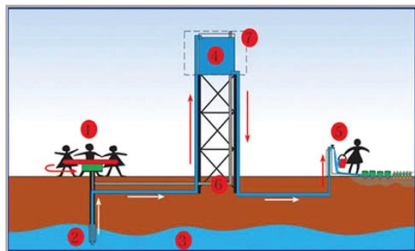


아프리카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발명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아프리카의 수백만 시골 마을들이 심각한 수자원 위기에 처해 있다. 물 부족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혹한 영향을 미쳐서 깨끗하지 않은 물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이 숫자가 AIDS로 인한 사망자의 5배나 된다.



남아프리카 기업가인 트레버 필드(Trevor Field) 씨는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놀이펌프(PlayPump)'라는 급수 장치를 고안했다. '놀이펌프'는 펌프와 저장 탱크, 수도꼭지가 부착되어 있는 회전목마로서, 아이들이 놀면서 회전목마를 돌리면 우물에서



시간당 370갤런의 물을 펴 올릴 수 있다. 게다가 마을 측에서는 어떤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저장 탱크의 네 면 중 두 면이 상업 광고용으로 대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유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면은 건강과 교육 관련 메시지를 홍보하는 데 사용된다. 필드 씨는 10개국에 4천 개의 '놀이펌프'를 설치해 아프리카인 천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06년 11월, '놀이펌프' 설계에 대해 알고 감동을 받은 미국 코네티컷·캘리포니아·아이오와의 몇몇 학생들은 이 사업을 돕고자 한 요가원과 몇몇 식료품점 앞에서 생수를 팔았다. 교사들도 매일 물 배달을 돕겠다고 신청했으며 지역 사업체들도 대량으로 물을 구입했다. 단 6개월 만에 학생들은 14,000달러를 모금했고, 이 금액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마사나(Masana) 초등학교에 '놀이펌프'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 학교에 '놀이펌프'가 배달되자 남아프리카 학생들은 펄 듯이 기뻐했다! 그들은 감사의 노래를 합창하며 미국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



참고:

<http://www.msnbc.msn.com/id/21134540/vp/22380927#22380927>

<http://dailynightly.msnbc.msn.com/archive/2007/12/23/532345.aspx>



행복한 개 천사

포모사 뒤로우 사저 구술, 그녀의 엄마 사저 기록 (원문 중국어)

나는 포모사에서 태어났고 올해 열두 살이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저 위의 세계에서 살았다. 한번은 천사들이 줄을 서서 갖가지 종의 기품 있고 아름다운 강아지로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도 강아지가 되고 싶어 줄을 섰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개 집들마다 갓 태어난 강아지들로 가득하고 천사들이 줄줄이 내려가 그 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저의 내 차례가 다 되었을 때 내 앞에 있던 천사가 말티즈가 되려고 막 뛰어내리려는 모습을 보고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와, 너무 멋있다! 말티즈다! 나도 말티즈가 되고 싶은데.” 그러자 앞에 있던 그 천사가 갑자기 멈추더니 말했다. “좋아, 네게 먼저 양보할게.” 나는 아주 기쁘게 뛰어내려 말티즈가 되었다. 처음 개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나는 기어가서 젖을 빨고 싶었지만 다른 강아지들에게 치여 한쪽으로 밀려났다. 나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다시 비집고 들어가 엄마 개에게 다가 젖을 빨았다. 와! 따끈따끈하고 달콤한 것이 정말 맛있었다.

나는 점점 자라서 많이 컸다. 한 여자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부엌에서 나를 키웠다. 그곳에는 개 침대와 물 그릇, 밥 그릇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개 침대에서는 다른 개의 냄새가 나서 감히 잘 수가 없었다. 다른 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인이 먹을 것을 줄 때마다 정말 먹기 싫었다. 모두 고기 종류인 데다 언제나 차갑게 식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은 늘 이렇게 말했다. “왜 그러니? 왜 안 먹는 거야?” 나는 배가 고파 못 견딜 때에만 억지로 조금 먹었다. 한번은 의자를 이용해 식탁 위로 뛰어올라 갔는데, 거기에 셀러드 한 접시가 있었다. “와! 셀러드다. 신난다!” 나는 얼른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얼마 안 있어 주인에게 들켰지만 이미 실컷 먹은 뒤였다. 주인은 나를 안아서 식탁 위에서 내려놓더니 남은 셀러드를 전부 주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늘 생야채 셀러드를 주었다.





여주인은 내가 정원에 나가서 놀 수 있도록 특별히 문에 개구멍도 만들어 주었다. 그녀가 그 구멍으로 드나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나는 마음껏 정원과 집 안을 다니며 놀 수 있었다. 비가 내린 뒤면 언제나 정원으로 달려나가 진흙에서 구르느라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주인은 나를 목욕시켜야 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서둘러 개구멍 문을 잠가 버리기까지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녀의 다리 밑에서 킁킁거리며 개구멍을 열어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마당에 나가서 뒹굴도록 해주었다.



주인은 항상 나를 데리고 나가 산책을 시켜 주었다. 나는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싶을 때면 먼저 잔디에서 다른 개의 냄새가 나는지부터 맡아 보았다. 다른 개의 영역이면 자연스럽게 그 개의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큰 개의 영역이면 그곳에서 볼일을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나보다 작은 개의 영역이면 그냥 볼일을 본다.

간혹 손님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올 때도 있었다. 그중 한 소년이 내 등과 털을 난폭하게 움켜 잡았는데, 너무 아파서 나는 큰 소리로 멍멍 짖어댔다.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달려왔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품속으로 달려들어 도움을 청했다. 그녀가 한창 바쁘면 나는 그녀의 다리 근처에 숨어서 그 아이들을 피하곤 했다. 사실 난 그전까지는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그 일 이후로는 그들이 무서워졌다.

주인은 종종 베란다에 말린 옷을 놓아 두곤 했는데, 나는 그 속에서 낮잠 자는 것을 좋아했다. 한번은 내가 없어진 줄 알고 주인이 매우 걱정했다. 나는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몇 번 작게 짖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른 달려와서 말했다. “아가야! 여기 있었구나. 안 보여서 걱정했잖아!”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나를 옆에 앉히고 옷을 개기 시작했다.

한번은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주인은 미리 내게 경고했다. “그 사람 발을 물지 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나는 그녀의 말을 한 귀로 흘려 버리곤 그 사람에게 달려가 발을 물었다. 그런데 겨우 한번 물었을 뿐인데도 참을 수가 없어서 바닥을 구르며 카펫에 계속 입을 닦았다. 그리고 그 역겨운 냄새를 없애려고 물건을 있는 대로 다 깨물었다. 주인은 나를 보면서 큰 소리로 계속 웃고선 어서 물을 마시라고 말했다. 얼른 달려가 물과 음식을 잔뜩 먹고 나니 겨우 냄새가 좀 사라졌다. 그때 이후로는 감히 사람의 발을 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주인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일찍 집으로 돌아온 주인에게 발견되고 말았다. 그녀는 나를 팔로 꼭 안아 주었다. 나는 천천히 개의 몸에서 빠져 나왔다. 곧이어 개의 모습에서 나의 주인만큼 큰 천사로 바뀌었다. 나는 주인과 파장을 맞추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고 나도 놀랐다. 나는 그녀가 눈에 보이는 광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선 재빨리 개의 몸





으로 바꾸어 꼬리를 흔들며 귀염을 떨었다. 그 즉시 상황을 이해한 주인은 아주 기쁘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때 주인의 친구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갑자기 슬퍼하다가 또 금방 즐거워하고 그러다 허공에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주인에게 안녕을 고하며 순식간에 위로 솟구쳐 윗세계로 돌아왔다.

나의 어머니가 지구로 내려오기 전,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되어 자신의 공부를 도와줄 적당한 존재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계속 도움을 찾아다녔다. 많은 천사들이 왔지만 아무도 그녀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았다. 내가 가자 그녀는 자신의 공부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간절히 부탁했다. 내가 허락하자 그녀는 펄 듯이 기뻐하며 지구로 내려갔다. 나는 가끔씩 미래의 어머니를 보러 내려가곤 했는데 그녀가 아직 어린 것을 보고선 먼저 개로 태어나기로 마음먹었다. 개의 수명이 나의 어머니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나중에 어떤 천사가 내가 지구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선 내 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나는 좋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서 열 명이 넘는 천사가 찾아와 내 개가 되고 싶다고 부탁했다. 난 앞의 몇 명에게만 허락해 주었다.

그 뒤 어느 날, 윗세계에서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칭하이 스승님께서 춤을 추실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두들 칭하이 스승님을 뵙고자 서둘러 날아갔다. 눈 깜박할 사이에 하늘은 천인(天人)들로 가득 찼다. 나도 지구 근처의 한 곳으로 날아가 구름에 엮들러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얼마 후 한 천사가 날아와 말했다. “서둘러! 서둘러! 네가 태어날 때가 됐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니? 아직 다 못 봤는데!” 그러자 그 천사가 말했다. “안 돼! 안 돼! 어서 서둘러!” 나는 할 수 없이 그를 따라 신이 계신 곳으로 갔다.

신은 높은 왕좌에 앉아 계셨는데, 양 옆에 대천사가 한 명씩 서 있었다. 신은 인간이 되었을 때 가질 결점을 고르라고 하셨지만 나는 고르기가 싫었다. 그러자 신은 말씀하셨다. “그럴 수는 없다. 오직 큰스승만이 결점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난 순진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그럼 전 큰스승이 될래요.” 그러자 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안 된다! 큰스승이 되는 건 너무 고생스럽다. 너에겐 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 이런 일들을 기억하도록 해 주마. 하지만 넌 임무가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점을 고르기 시작했다. 고르기 시작하자 한 무더기나 되었다. 대천사가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너무 많이 고른 것 아니니?” 난 얼른 결점 중 몇 개를 지워 버렸다.

그후 내 옆에 있던 구멍으로 뛰어내리자 곧바로 아기의 몸 속으로 들어갔다. 당시는 나의 머리가 막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바깥 세계의 공기는 정말 차가웠고 불빛은 너무 강렬했다. 나는 너무 불편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도 있는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은 태어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인간 세상이란 게 이런 건가?’ 나는 항의하듯 큰 소리를 질렀다. “불빛이 왜 이렇게 강해요? 공기는 왜 이렇게 차요?” 그러나 들리는 소리라곤 “응애! 응애! 응애!” 하고 우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항의해 봤자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울음을 그쳤다.

지구에서 자라는 동안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에서야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털어 놓았다. 지금 나는 부모님과 남동생, 내 개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동물들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길 바란다. 🌸



동물 심령사

제인 엘런 플로트킨과의 만남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제504회·505회 정리 (원문 영어)



여러분의 반려 동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반려 동물들에게 그들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수프림 마스터 TV’ 기자는 최근 심리 치료사인 제인 엘런 플로트킨(Jane Ellen Plotkin)을 만나 동물과의 소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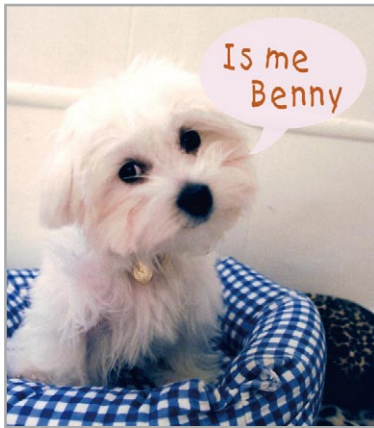
제인은 2000년에 중요한 깨달음을 경험한 이후 동물 심령사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채식주의가 되었고 자신의 애완동물에게도 채식 음식을 먹인다. 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정말 영혼이 있는 다른 존재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중뇌 혹은 대뇌를 가진 생물은 모두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동물은 각기 나름의 영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어떤 동물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집단적인 과제를 갖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개를 돌보는 것은 인간의 직무 가운데 일부인데, 개들은 일단 먹을 것과 잠자리가 해결되고 나면 그들의 본질과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보한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종(種)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선물이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터뷰하는 동안 제인은 스승님의 개 이름을 듣거나 사진만 보고서도 그들에 대해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럭키(Lucky)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럭키는 자신이 아주 운이 좋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제인은 또한 대부분의 개들이 다행스럽게도 오래 기억하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오직 냄새를 통해서만 사람을 기억하거나 과거의 일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 “럭키는 아마 어떤 소리나 냄새 때문에 일깨워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긴 해도 그건 그의 특징 가운데 일부예요. 수줍음 많고 겸손하지만 호사를 누리고 있는, 스승님의 이 어린 아들은 정말 스승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점은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또한 베니(Benny)가 개의 모습을 한 높은 차원의 존재가 틀림없다고 확언했다. 베니는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타고 났는데, 이는 그 자신의 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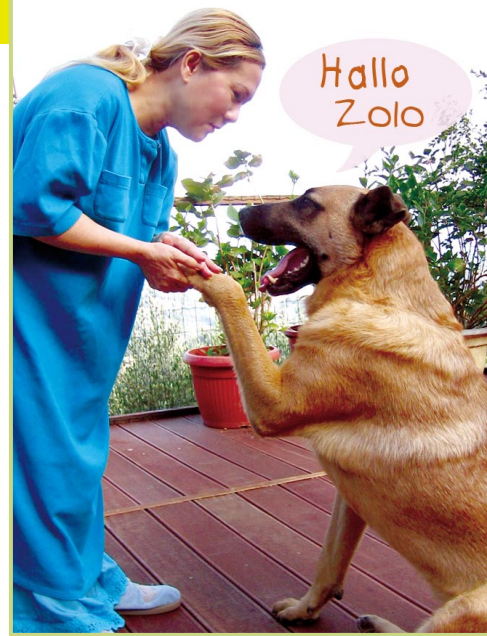


과 스승님의 본성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한다. “그는 평생토록 이 특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의 주의력은 항상 스승님께 향해 있어요. 스승님이 그에게 있어 여신의 화신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의 삶은 스승님의 사랑에 완전히 헌신합니다.” 한편 졸로(Zolo)는 구조되기 전에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다소 안정되었고 매우 행복하며 자신을 스승님의 보호자, 혹은 수호자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제인은 인간의 아이들처럼

스승님의 개들도 스승님의 깨달은 생활 방식과 이해심을 내면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승님으로부터 수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제인은 전세계 ‘수프림 마스터 TV’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여러분이 애완동물에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운동하고 간식을 먹고 충분히 이완하고 나면 그들에게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다소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하거나 그것을 육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그들의 지능이 확장되고 그들도 여러분에게 화답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그들의 IQ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지수(EQ)를 계발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과 접촉하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동물이 인류에 보내는 메시지에 관해서 제인은 이렇게 말했다. “동물들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인류와 마찬가지로요. 그들이 인간의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토록 깊게 하나의 개체로 인식된 적이 없습니다. 선택의 경험도 훨씬 적었고 예절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살며 그들의 사랑을 받는 인류가 그들에게 해준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들을 무리 가운데 하나인 존재가 아닌 단독 개체로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인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이지만 또한 우리 각자는 독특한 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류가 여기에서 동물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것은 정말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인터뷰를 끝내면서 제인은 동물 친구들을 대표해 칭하이 무상사께서 하신 모든 훌륭한 업적과,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빛나는 방식으로 관음의 정신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승님도 다음과 같은 편지로 화답하셨다.

안녕하세요, 제인.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당신이 내 개들에 대해 말한 건 모두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 당신이 말한 그대로예요. 물론 그들은 훨씬 더 현재에 충실하게 살고 있고 난 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제인, 당신은 정말 뛰어난 동물 심령사군요! 동물들은 당신을 아주 좋아합니다. 신도 당신이 하는 일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내 애완동물들이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는군요.

충만한 사랑을 보내며

~칭하이 무상사

이 독점 인터뷰를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전체 방송분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W504-505.php>

동물 심령사 제인 엘런 플로트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그녀의 웹사이트(www.atalkwithspirit.com)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janeellenplotkin@earthlink.net)로 연락해 주세요.

달려오는 차로부터 소녀를 구한 개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포 모사 타이둥 현에 ‘지루(吉鹿)’라는 아키다견이 질주하는 차를 향해 뛰어들어 여섯 살짜리 소녀를 구해 냈다.

지루의 주인인 뤼지룽(羅吉榮) 씨에 따르면 지루는 주인이 경영하는 견인차 보관소를 지키는 씩씩하고 당당하게 생긴 개로, 뤼 씨네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이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뻔한 2월 26일, 질주하던 차가 차도에서 놀고 있던 소녀를 치려던 찰라 지루가 집에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소녀를 보호하려 한 듯했다. 차는 먼저 지루를 친 후 급정거를 하면서 길 옆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덕분에 아이는 구사일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루는 심하게 다쳐서 전신이 마비되었다. 주인은 사랑하는 개가 다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이둥, 핑둥, 타이중의 동물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게 했다. 뤼 씨는 지루를 구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록 지루가 전신이 마비되어 식물 상태로 있게 된다 해도 지루를 사랑하는 그의 가족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지루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지루의 용감한 행동은 인간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

주요 연락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전세계 위성 정보와 설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http://suprememastertv.com/satellite>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 · SM 보석 · 천의 · 만세동 ·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서평: 크리스티 크래브트리(Christy Crabtree)

아름다운 삽화와 기쁨에 찬 문장이 어우러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독자들에게 칭하이 무상사와 말할 줄 아는 그녀의 놀라운 새 친구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다채롭고 눈부신 사진이 각 새들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일화, 그 외 잊지 못할 멋진 글과 함께 페이지를 가득 채운다. 이는 분명 독자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줄 특별한 책으로서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정신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충만한 웃음을 자아내게 해줄 것이다. 이 보물 같은 책은 저자가 구해 내 사랑으로 키운 조류 가족들에게 바치는 사랑의 선물이다. 새들이 텔레파시 방식으로 저자에게 전한 마음속의 달콤한 시들은 인류와 동물이 서로 소통하는 간단한 비결이 바로 사랑과 정임을 보여 준다. 새 애호가들이라면 꼭 봐야 할 책, 혹은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심신의 평화를 가져다줄 최고의 책이다. “여러분에게 애완동물이 있다면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은 창조의 시작 이래로 비밀스럽게 지켜진 자신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말이다.

에미상을 수상한 뉴스 기자 제인 벨레즈 미첼(Jane Velez-Mitchell)은 이렇게 말한다. “칭하이 무상사와 새들의 관계는 모든 인류가 갈망해야 할 이상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녀는 작은 새장에 갇혀 초췌해진 새를 보았을 때, 그 피조물을 구조해 사랑과 마음의 대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새 생명을 불러넣습니다. 저자는 심오한 교훈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피조물에게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으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세계(The Animal World)』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세상의 의식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천국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받고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기 돼지의 말

청하이 무상사가 20대에 쓴 시
(원문 어울락어)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분홍빛으로 포동포동하고 토실토실한 나는
엄마와 즐겁게 장난치고 놀았지요.

당신은 날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칭찬했어요. “와, 정말 통통하고 귀엽구나!”
당신은 매일같이 들려서
시원한 물과 맛있는 야채를 가져다주셨어요.

엄마와 나는 정말 감동했어요.
당신의 친절은 황금보다 귀했어요.
당신의 관심과 보호 아래
나는 평화로이 살아갔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토실토실해졌지요.
그저 먹고, 쉬고, 놀고.....

오늘 새벽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고
어머니와 나는 다정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다가오는 비극은 알지도 못한 채!

호랑이와 코끼리같이
억센 두 청년이
작은 내 몸을 무시무시한 우리 속에
납작하게 밀어 넣었어요!
도망칠 길이 없었어요!
오, 하느님! 이게 무슨 형벌인가요?

나는 두렵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살려 주세요!
오, 주인님. 빨리 와서 보호해 주세요!
제 생명을 구해 주세요! 저는 아직 어려요!

슬픔에 빠져 우는 엄마의 눈에는
절망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드넓은 천국도 이 끔찍하고 고통스런 심정은
담지 못할 거예요!

나의 주인은 떠나버렸어요.
그의 두 손은 돈을 세느라 비뻐졌지요.
불행한 나는 차 짐칸을 뒹굴었어요.
육신의 비참함보다 더 아픈
찢어진 가슴을 안고!





두 청년이 놀려댔어요.
“이 새끼 돼지 정말 맛있겠다!
내일 잡아서
아내가 낳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해야지!”

아, 삶은 얼마나 모순적인지!
내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가슴에는 눈물이 흘러요,
개울처럼 피가 흘러요.

당신이 날 사랑해서
다 자라도록 키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짜,
당신에겐 그저 이익이었던 것을!

내일이면 내 몸은 조각조각 잘려 나가요.
내 삶과 뼈는 지독한 고문에 갇혀 나가요.
그래야 사람들이 행복한 잔치에 모여
즐겁게 웃을 수 있겠지요.

당신의 아이와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 모두
오래오래 살기를 빌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며
나 같은 운명은 겪지 않기를.....

온 가족이 고귀하게 살며
여러 생 동안 인간으로 태어나길 기도드려요.
그리고 결코 돼지로 태어나
영원토록 업장의 빛을 갇는 일 없기를!

아, 생명아, 안녕.....
고통스러워하던 자애로운 엄마가 그리워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아, 엄마! 엄마..... 엄마.....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시 ‘아기 돼지의 말’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JAR527.php>

스승님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오셨다. 어딘가에 재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스승님은 즉시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시고 재해 지역에 구호 팀을 파견해 도우신다. 이 같은 구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다.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축복, 도움으로 세계적인 재난이 최소화되었음은 분명하다.

스승님께서 세계 각지의 정부와 단체, 구호 대원들의 사심 없는 노력을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

“이재민들에게 관심과 구호품을 가져다준 모든 국제적인 원조에 감사를 보냅니다. 또 자신의安危는 돌보지 않은 채 시간을 내어 좋지 않은 도로 여건과 여러 악조건을 뚫고 멀리까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원조를 제공해 준 모든 구호 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과 고귀한 희생이 하늘의 충만한 축복으로 보답받길 기원합니다.”

볼리비아

스승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볼리비아 구호 팀 (원문 영어)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미국과 코스타리카 재난 구호 팀은 2008년 2월 7일, 스승님의 사랑 어린 관심과 미화 만 달러의 기부금을 가지고 볼리비아로 가서 최근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도왔다.

산타크루즈(Santa Cruz)에서 수재민들이 이미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우리는 버스 정거장과 도심지에서 많은 양의 ‘SOS’·‘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전단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해 고마워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의 위험한 기후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정보를 어디서 더 구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구호 팀은 트리니다드(Trinidad) 시의회에서 적십자 총재인 케사르 리제론(Cesar Ligeron) 박사와 연락을 취해 그의 주선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방문했다.

동수들은 그곳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식품, 특히 어린 이용 우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재민들은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면서 “신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온 거지요.”라고 말했다. 구호 팀은 요청받은 쌀·콩·우유 등의 식품을 구입한 후 해군 보병 부대에서 해병 20명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구호품을 포장했다. 병사들은 동수들에



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단체와 일하게 되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후 구호 팀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해 달라고 스승님께 신실하게 기도드렸다. 그러자 그날 아침 군 간부인 에드윈 키타나(Edwin Quintana) 대령이 수재민 8백 가구의 명단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이들 가정에 식품을 나눠 주었다. 그중 많은 가구에 노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호 팀의 배려에 대해 놀라며 감격스러워 했고 자신들을 기억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스승님께 무척 감사드렸다. 구호 팀이 직접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신 나눠 달라며 막시밀리아노 노에(Maximiliano Noe) 신부에게 식품을 맡겼다.

구호 팀은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으며, 이제 만들도 가슴 깊은 곳에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길 희망했다.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볼리비아 수재민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볼리비아노)

지출 내역	금 액	영수증 번호
식품(쌀·밀가루·식용유·시리얼·옥수수·우유)	78,128.00	A1~A4
교통비(비행기표, 택시, 차량 임대, 버스), 전단, 숙박비, 통신비, 잡비	44,288.31	B1~B14
합계	122,416.31 미화 16,107.41달러	





케냐

신의 은총으로 도움 받은 난민 가족

케냐 구호 팀 (원문 영어)

2008년 3월 21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케냐 구호 팀은 나쿠루(Nakuru) 지역으로 가서 최근 케냐 내란으로 인해 살 곳을 잃은 난민들을 도왔다. 케냐 국민들의 처지에 대해 들으신 칭하이 무상사는 자비롭게도 긴급 구호금으로 미화 2만 달러를 기부하셨다.

구호 대원들은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솔레이(Solay) 경찰서, 아퀴지(Akuisi) 캠프, 케냐 농협(KFA) 캠프 등 세 곳을 돕기로 정했다. 이 곳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지역 비정부기구(NGO)의 도움과 안내로 구호 팀은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품목을 정해 쌀, 콩, 비누, 옥수수 가루, 식용유, 컵, 숟가락, 접시, 위생용품, 여성 위생용품 및 곧 도착 추운 우기에 대비한 담요를 구입했다. 현지 족장과 비정부기구, 난민들 모두 구호품에 대해 매우 고마워했으며 스승님과 협회 회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그들은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구호 대원들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부여하는 명예인 아프리카 이름을 지어 주기까지 했다!



RONGAI POST-ELECTION VIOLENCE VICTIMS FORUM

THE SUPREME MASTER CHING-HAI ASSOCIATION INTERNATIONAL
ATT. DAVID, MICHEL & TEAM
22ND MARCH 2008.

DEAR FRIENDS,

RE: APPRECIATION

Further to our earlier appeal letter for assistance and your visit to Solay area on a last finding mission on 14th March 2008, with its on behalf of the displaced families in the area thank you most profusely for the food and supplies that you donated and presented to us yesterday, 21st March 2008.

Just to update you, the donation was able to directly benefit over 250 families, close to 1,000 people in all, as everything was shared out well with each person getting something.

This was done by the local chiefs in conjunction with local committees of the respective camps as well as grassroots leaders of both RONGAI ALL CHURCHES COALITION, a local religious leaders forum tackling poverty, disease and illiteracy and RONGAI YOUTH ACTION, a local youth group fighting HIV/AIDS through sports and other diversions.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most timely interventions.

Yours Sincerely,

PETER K. MBAE
CHAIRMAN, RONGAI POST-ELECTION VIOLENCE VICTIMS FORUM
COORDINATOR, RONGAI ALL CHURCHES COALITION
CHAIRMAN, RONGAI YOUTH ACTION
0722 894911, Email: peter.mbae@gmail.com/petermbae2@yahoo.com

스승님과 협회의 시기적절한 도움에 대한 피터 음바에 씨의 감사 편지.




구호 팀은 사람들과 '대안적인 삶' 메시지도 나눴다. 사람들은 채식과 채식의 건강상의 이로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무척 받고 싶은 듯이 모든 캠프 사람들이 빠짐없이 이 아름다운 전단을 받았다.

구호품을 받은 '론가이 교회 연합(Rongai All Churches Coalition)' 책임자이자 '론가이 청년 행동(Rongai Youth Action)' 회장인 피터 음바에(Peter Mbae) 씨는 곧바로 감사 편지를 통해 250여 가구, 거의 천 명의 사람들이 시기적절하게 제공된 원조로 혜택을 입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현재 협회 회원들은 이곳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씨앗과 비료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구조 대원들은 스승님의 사랑 어린 인도에 깊은 감사

를 드리고자 하며 아울러 케냐가 이미 안정되어 국민들이 행복한 미소를 되찾았으며 이 아름다운 나라에 다시 한 번 평화가 도래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한다. 

주: 관련 지출 내역과 영수증은 다음 호에 게재된다.

지진 피해자들이 신의 도움을 받다

콩고민주공화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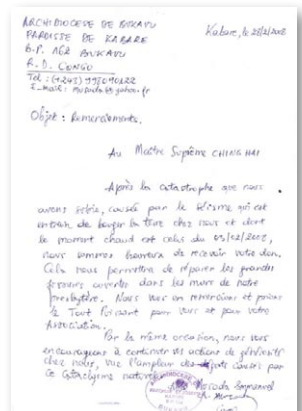
2 008년 2월 3일,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동부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스승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즉시 미화 만 달러를 기부하시고 동수들에게 이재민을 돕도록 지시하셨다.

콩고민주공화국

동 수들은 먼저 콩고의 수도 킌샤사(Kinshasa)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마(Goma)에 도착한 다음 다시 배를 타고 부카부(Bukavu)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식품과 의약품이 포함된 모든 구호품이 도착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산간 마을인 카바레(Kabare)에서는 학교로 사용되는 그 지역 교구 교회가 지진으로 심하게 파손되는 바람에 목사들이 살 곳을 잃고 아이들 교육도 중단된 상태여서 이로 인한 농부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구호 팀은 즉시 임시 숙소와 교실로 사용할 천막 25개를 구입하고 교회를 수리할 시멘트와 모래도 구입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모든 어려움은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되었다.

이 밖에 주민들은 견본책자, '수프림 마스터 TV' 정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았으며 스승님의 사랑에 깊이



현지 목사가 스승님께 보낸 감사 편지.

감동했다. 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번 구호 활동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목사는 “이것은 신께서 보내신 도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채식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스승님께 감사 편지도 보냈다. 동수들은 스승님께서 이번에도 어려운 시기에 축복을 베풀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을 알고서 기쁘게 카바레를 떠났다. 🌸

르완다

동수들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르완다 서부의 루치치 (Ruzizi) 주에 도착했다. 루치치 주의 느롬보(Nkombo) 섬은 많은 집과 학교가 지진으로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을 통해 이미 몇몇 국제 비영리 단체와 정부가 음식·약품·담요·천막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 천막은 학생들의 임시 교실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야외의 나무 밑에서 수업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에겐 이전의 진흙 건물을 대체해 더 튼튼한 교실과 집을 지을 시멘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동수들은 가까운 읍내로 가서 시멘트 10톤을 트럭 두 대에 싣고 왔다. 동수들은 또 읍장을 만날 기회도 가졌다. 우리 협회와 스승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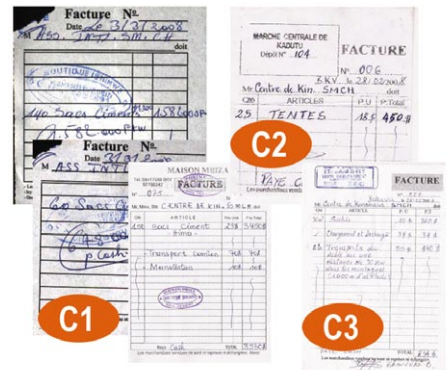
을 소개받은 읍장은 동수들이 콩고에서 르완다까지 도와주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감동했다. 르완다에는 왜 센터가 없느냐는 그녀의 질문에 동수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당신이 신실하고 정말로 원한다면 생길 겁니다.” 그곳을 떠나기 전 동수들은 견본책자, ‘수프림 마스터 TV’·‘대안적인 삶’ 전단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청하이 무상사의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지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미국 달러)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시멘트, 모래	8020.00	C1
천막	450.00	C2
교통비	608.00	C3
이재민 위문금	186.00	
합계	9,264.00	



미국

피드먼트 홍수 구호 활동

미주리 뉴스그룹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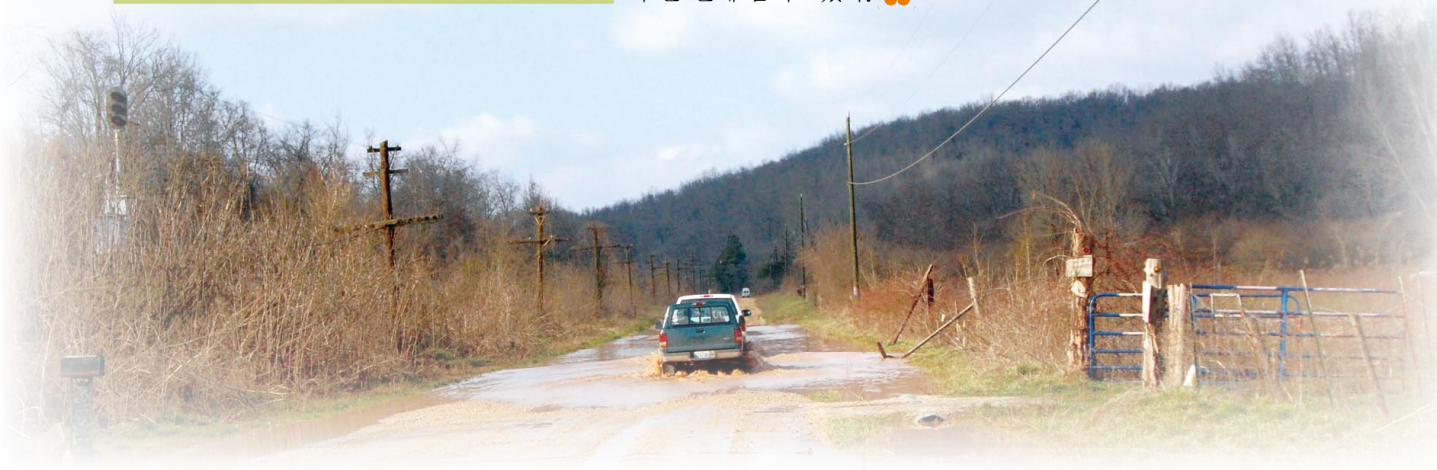
2008년 3월 17일과 18일에 내린 폭우로 미주리 주 피드먼트(Piedmont)는 1982년 이후 최악의 홍수를 겪어 시내 도로 대부분이 3피트의 물에 잠기고 100여 개 마을의 주민 2천 명이 대피해야 했다.

롤라(Rolla)에 있는 미주리 센터는 이 소식을 접하고선 3월 19일에 피해 지역으로 구호 탐을 보냈다. 동수들은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해 수재민들에게 샌드위치와 과자, 음료수를 나눠 주는 한편 이 대피소와 지역 고등학교에 마련된 구호품 배포 센터에 다른 구호품을 운송했다. 한 적십자 직원이 우리가 입은 노란 재킷을 보고 우리 단체를 알아봤다. 최근 아칸사스 토네이도 구호 작업에서도 동수들이 입었었기 때문



이다. 그녀와 다른 봉사자들은 우리 단체가 각종 재난 구호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구호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현지 구조 요원들에게 'SOS' 전단도 나누어 주었다. 봉사자들 중에 마침 피드먼트 학구(學區) 교육장이 있어서 그에게 스승님의 책을 이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형사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특별한 안배를 해주신 신께 감사드렸다. 🌸





중국

폭설 피해자들에게 영제애를 전하다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올 해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쓰촨(四川) 성 간쯔(甘孜)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스취(石渠) 현에는 열 차례의 눈으로 지역 사상 가장 심한 폭설 피해가 발생했다. 스취 현 주민 90%가 재해를 입었으며 약 2천여 명이 동상에 걸리고 많은 가축들이 죽었다. 초원이 폭설에 뒤덮여 지역 동물들이 먹이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티베트 영양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다. 일기예보에서는 이 지역은 폭설과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재난 소식을 들은 중국 동수들은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즉



시 방한복과 이불, 의약품 등 이재민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다. 우리 구호 활동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도 우리와 합류해 옷을 기증하고 포장과 운송 작업을 도와 주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모든 물품이 3월 18일에 피해 지역으로 무사히 수송되었다. 현지 민정국장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때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humanitarian>

(연도, 국가/지역, 사건별 검색 가능)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신의 사랑

중국 리 동수 (원문 중국어)

지난 5년 동안 두 명의 동수와 나는 우리 회사의 각 사무실마다 스승님의 강연 DVD·CD·MP3, 그리고 최근에는 '수프림 마스터 TV'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았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싸왔고, 점심 식사 후에는 모여서 마작을 즐겼다. 또 사장이 직원과 같이 식사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입사 후 첫 해 송년회 겸 음력설 연회는 아주 칙칙했다.

다행히도 우리 사장과 부장은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었다. 그들도 우리가 틀어놓는 스승님의 강연을 좋아해서 근무 시간에 틀어놓도록 허락해 주기까지 했다. 그동안 우리는 명상도 많이 하고 가능한 한 단체명상에도 참가했다. 회사도 이익의 일부를 공익 사업에 할당했다.

차츰차츰 회사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점심 시간에 즐기던 마작 놀이가 없어졌고 많은 직원들이 스승님의 강연 DVD를 보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나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채식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송년회 분위기도 해가 갈수록 화목하고 유쾌해졌다.

노사 관계도 더욱 돈독해져서 다들 함께 모여 채식 점심을 먹고 같이 스승님의 강연 DVD를 시청한다. 일하는 목적도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인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로 여긴다. 이런 개념의 변화는 신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내면의 막강한 힘이 세세생생 왜곡된 개념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밖에 우리 사무실 벽에는 스승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걸리게 되었고 파일 캐비닛 위에는 밝음을 상징하는 만세등이 놓였으며 회사 안팎으로 꽃들이 가득 차 있다. 고객들은 이제 이전의 엄숙한 분위기 대신 우아한 느낌을 받는다.

게다가 회사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이제는 몇몇 노숙자들이 밤이면 회사 뒷문 쪽에 자리를 깔고 잠자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어떤 강력한 사랑의 힘을 감지하거나 한 것처럼 말이다. 또 회사 양쪽에 있던 육식 식당도 모두 철거되었고, 정부는 그 자리에 공원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은 영적으로 더 많이 고양된 종업원들이 입사해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 한 명은 스승님의 사랑에 감화되어 지금은 우리 동수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스승님의 출판물과 '수프림 마스터 TV'에서 매우 강력한 힘이 뿜어져 나오며, 그것이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기고 주변에 밝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또는 폭넓게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처와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처가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베냉:

- 코토노우/ Mr. Yedjenou Georges/ 229-93076861/ smchwisdom gmail.com
- 코토노우/ Mr. Yedjenou Sylvestre/ 229-21380404/ yedsylves gmail.com
- 코토노우/ Mrs. Hounwanou Sessito Lucie/ luxet1 yahoo.ca
- 포르토노보/ Mr. Hounhoui Mahougbe Didier/ 229- 90 93 29 99/ smportonoovo yahoo.fr

* 부르키나파소:

- 와가두구/ Mr. YAMEOGO Honore/ 226-70 62 34 58/ honoreyam yahoo.fr

* 카메룬:

- 두알라/ Mr. Daniel Xie/ 237-3-3437232/ smcameroon gmail.com
- 두알라/ Mr. Thomas KWABILA/ 237-99-15-05-73/ thomaskwa yahoo.fr

* 콩고민주공화국:

-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 yahoo.fr
- 킨샤사/ Mr. Mbau Ndombe Abraham/ 243-811433473

* 가나:

- 아크라/ Mr. Amuzu Kwei Samuel/ 233-277607-528/ smghanac yahoo.com
- 아크라/ Mr. Emmanuel Koomson/ 233-244170-230

* 케냐:

- 나이로비/ Center/ 254-020-8010897
- 나이로비/ Mr. Chin Szu Yao/ 254-726944744/ smoothgoing gmail.com
- 나이로비/ Mr. Harold Dudi/ 254-202081068/ Atmoske yahoo.com

* 모리셔스:

- 포트루이스/ Mr. Janesh KISTOO/ 230 945 4527/ janesh7 orange.mu

* 나이지리아:

- 예나고아/ Ms. Harry Juliana/ 234-8032365567/ 234-805 802 8206/ bravilla yahoo.com

* 콩고공화국:

- 브라자빌/ 센터/ 242-5694029, 242-5791640/ goldenagecongo yahoo.fr

* 남아프리카공화국:

-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 yahoo.com
- 요하네스버그/ Mr. Tyrone Incendiario/ 27 83 468 7001/ tyronein jhb.stormnet.co.za

* 토고:

- 팔리메/ Mr. Dossouvi Koffi/ 228-905 42 76/ jdossouvifr yahoo.fr
- 팔리메/ Mr. Late Komi Mensa/ 228-441 09 48/ smkpalimetogo gmail.com
- 로메/ Mr. GBENYON Kuakivi Kouakou/ 228-902 72 07/ kgbenyon yahoo.fr
- 로메/ Mr. GERALDO Misbaou/ 228-022 78 44/ mmylg yahoo.fr

* 우간다:

- 캄팔라/ Ms. Kigoonya Rosalyn/ 256-772-675436/ debieshan yahoo.com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Mr. Pablo Baez/ 54-11-4381-9666/ hailovemaster hotmail.com

* 볼리비아:

-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 hotmail.com

* 브라질:

- 벨렘/ Ms. Cleci de Brito Neves/ 55-9188019288/ contato.belem yahoo.com.br
- 고이아니아/ Mr. Eusmar Rodrigues Martins/ 55-62-96016636/ goianiacycenter gmail.com
- 레시페/ Recife Center/ recifecenter gmail.com
-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vasconcelosdeoliveira.maria gmail.com

- 상파울루/ Center/ 55-11-5904-3083, 55-11-5579-1180
- 상파울루/ Liaison office/ 55-11-5083-7227/ sp contatoiretocomdeus.org
- 상파울루/ Mrs. Marcia Mantovaninni/ 55-11-3083-5459

* 캐나다:

- 에드먼튼/ Mr. Tuan Anh Phan/ 1-780-235-7578/ minokimba999 yahoo.ca
- 런던/ Center/ Mr. Bill Barton/ 1-519-4952215/ bbarto2162 rogers.com
- 몬트리올/ Center/ 1-514-277-4655
- 몬트리올/ Mr. Terrian, Terry/ 1-514-764-3534/ tterrian yahoo.com
- 오타와/ Center/ ottawacentre gmail.com
- 오타와/ Ms. Sonal Pathak/ 1-819-770-5516/ sjpathak36 hotmail.com
- 토론토/ Center/ 1-416-503-0515

- 토론토/ Mr. Calvin Nhat Nguyen/ 1-647-289 2142/ alpeace,nhat gmail.com

- 밴쿠버/ Mr. Gary Chen/ 1-604-710-7896/ gcheaven gmail.com

- 밴쿠버/ Mrs. Lisa Hollingberry/ 1-604-725-8687/ noblelife ymail.com

* 칠레:

- 라세레나/ Mr. Ruben Augusto Bonilla Araus/ 56-92967880/ ruboar hotmail.com
-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 yahoo.com
-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 gmail.com

* 콜롬비아:

- 보고타/ 센터/ Ms. Yudy Liceth Guzman perdomo/ 57-3003932587/ lucykuanyin gmail.com

* 코스타리카:

- 산호세/ 센터/ 506-2200-753
- 산호세/ Ms. Gabriela Azofeifa Murillo/ 50622 80 47 35/ gabrielaazofeifa racsa.co.cr

* 온두라스:

- 테구시갈파/ Mrs. Ondina Corrales Flores/ 504-222-7733/ ondicoteg yahoo.com

* 멕시코:

- 멕시코/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mexicali.center hotmail.com
- 멕시코 주/ Ms. Laura Lopez Aviles/ 52 55 58521256, 52 55 13974330/ texcenter gmail.com
- 몬테레이/ Mr. Humberto Martinez/ 521-81-1500 6818/ martinezrdzh gmail.com

* 니카라과:

- 마나과/ 센터/ 505-248-3651/ pastora7iglesia yahoo.com

* 파나마: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 파나마/ Mr. Cesar Ravel Sanjur Barrera/ 507-6707-2509/ ravelsanjur gmail.com

* 파라과이:

- 시우다드델에스테/ Mr. & Mrs. Italo Acosta/ 595-61-578571, 595-983614592/ italoacostaa hotmail.com

* 페루:

- 쿠스코/ Ms. Angelica Garcia Yanez/ 51-19-96138612/ agyrom hotmail.com
- 리마/ Ms. Ceterini Guillen Llanos/ 51-1 988950111/ joceami lycos.com
- 트루히요/ Mr. & Mrs. Raul Segu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 hotmail.com

- 수리남/ Mrs. Nian Li, Chen/ 597-8664577/ nianli,2006 yahoo.com.cn

* 베네수엘라:

- 마라카이보/ Ms. Dianela Carola Diaz Ferreira/ 58-4168605497/ dianela33 yahoo.es

* 미국:

-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 애리조나/ Mr. Elie Firzi/ 1-602 692 5035/ pelikan cox.net

- § 아칸사스: Ms. Cynthia Hudson/ 1-479-981-1858/ arkansascenterltes cox.net

- § 캘리포니아:

-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 yahoo.com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 yahoo.com

- 새크라멘토/ Mr. Thi Thai Le/ 916-799-7768/ thaivegi yahoo.com

- 새크라멘토/ Mr. Tuan Minh Le/ 1-916-226-9197/ tuanins yahoo.com

-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 juno.com

- 샌디에이고/ Mr. Yichuan Pan/ 1-858-829-6406/ quanyinsd gmail.com

- 샌디에이고/ Ms. Linh Ngoc Lien/ 1-619- 640-2489/ lienlinh gmail.com

- 샌프란시스코/ Mr. Blaise Scavullo/ 1-510-526-5474/ blaise.scavullo gmail.com

- 새너제이/ Ms. Crystal Silmi/ 1-510-421-2095/ crystalilmi hotmail.com

- 새너제이/ Mr. Jingwu Zhang/ 1-408-505-5824/ jingwuzhang hotmail.com

- 새너제이/ Ms. Mai Thanh Phan/ 1-408-603-5037/ smthanmai yahoo.com

- § 콜로라도: Mrs. Rachel Marzano/ 1-720-229-0446/ Rachel rippleeffectdesign.com

- § 플로리다:

- 잭슨빌/ Mr. David Tran/ 1-904-285-0265/ jaxcenter gmail.com

- 케이프코랄/ Mr. Long Huynh/ 1-239-593-1541/ cccltsaints gmail.com

- 올랜도/ Mr. Johnny Scott-Meza/ 1-407-529-7829/ scottmezaohhny yahoo.com

- § 조지아: Mrs. Mireille Whritenour/ 1-770-856-5421/ georgiacenter hotmail.com

- § 하와이: Mr. Neil Trong Phan/ 1-808-398-4693/ neilphan gmail.com

- § 일리노이: Ms. HaRim Lee/ 1-773-351-5957/ sm,illinois gmail.com

-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itz/ 1-317-842-8119/ josiepoeb sbcglobal.net

- § 캔터키:

-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 yahoo.com
- Louisville/ Mr. Lei Wang/ 1-502-644-2804/ wanglei300 gmail.com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 hotmail.com

\$ 메릴랜드: Ms. Joy Su/ 1-443-812-2681/ joyxiaominsu gmail.com

\$ 메릴랜드: Mr. Pete Theodoropoulos/ 1-410-667-4428/ petetheo1111 hotmail.com

\$ 메사추세츠:

- 보스턴/ Center/1-978-528-6113/ bostoncenter2008 yahoo.com
- 보스턴/ Ms. Brooke Guthrie/ 1-415-412-1336/ MotherEarthRocks yahoo.com
- 보스턴/ Mrs. MyDung Truong/ 1-617-480-2450/ mdtuong51 yahoo.com
- 보스턴/ Ms. Li-Yu Chen/ 1-781-228-1941/ Lywlolus yahoo.com,tw
- \$ 미시간: Ms. Jeanne Minier/ 1-517-667-0697/ michigancenterusa gmail.com
- \$ 미네소타: Mr. & Mrs. Hoang Ta/ 1-952-226-4203 8/ yolanta66 yahoo.com
- \$ 미주리: Ms. Mary Ella Steck/ 1-573-230-3843/ maryellasmvtv gmail.com
- \$ 뉴멕시코: Mrs. Nga Truong/ 1-505-256-3104/ ntruongnm yahoo.com
-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 gmail.com
- \$ 뉴저지: Mr. Hero Zhou/ 1-973 - 960 6248/ yb_zhou hotmail.com
- \$ 뉴저지: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 yahoo.com
- \$ 뉴저지: Ms. Bozena Chetnik 1-973-896-8659/ bozena_chetnik yahoo.com
- \$ 뉴욕:
- 뉴욕/ Ms. Heidi Murdock/ 1-516-991-4317/ heidimurdock yahoo.com
- 뉴욕/ Ms. Woan-Hwa Renee Sytwu/ 1-973-462-8967/ rsytwu.nycenter gmail.com
- \$ 노스캐롤라이나: Mr. Fred Lawing/ 1-704-614-4397/ northcarolinacenter hotmail.com
- \$ 오퀸하이오: 센터/ centerohio gmail.com
- \$ 오퀸하이오: Mr. Sutschenko, Aaron/1- 513-325-9000/aaron loveforce.net
- \$ 오클라호마: Mrs. Tran, Thao/ 1-918-292-8884/ smtu2007 cox.net
- \$ 오리건: Mrs. Xuan Cheng/ 1 - 541 - 9054073/ xuan.cheng2008 gmail.com
- \$ 펜실베이니아: Mrs. Thao Le/ 1-717 432 0720/ thaocppa yahoo.com
- \$ 사우스캐롤라이나/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474-3492/ smch_southcarolina yahoo.com
- \$ 텍사스:
- 오스틴/ Center/ 1-512-396-3471/ jidawu yahoo.com
- 오스틴/ Mr. Hien Nguyen/ 1-512-300-8929/ hienng yahoo.com
- 댈러스/ Center/ 1-214-339-9004/ DallasCenter yahoo.com
- 댈러스/ Mr. Tom Venum/ 1-360-223-0855/ tom_vennum yahoo.com
- 댈러스/ Mr. Quang Nhat Vuong/ 1-682-203-8310/ imquangvuong yahoo.com
- 댈러스/ Ms. Xiaoyun Liao/ 1-214-280-0621/ Sharon_xyiliao yahoo.com
- 휴스턴/ Center/ 1-281-955-5782
- 휴스턴/ Mrs. Ariane Liao/ 1-713-774-5234/ aikipiano yahoo.com
- 휴스턴/ Ms. Judy Peng/ 1-281-7944464/ judyjpeng hotmail.com
- 휴스턴/ Mrs. Van Le Ngoc/ 1-832-3671187/ phivanlove yahoo.com
- 샌안토니오/ Mr. Adam Gomez/ 1-210-313-5023/ adamdgomez hotmail.com

\$ 버지니아

- 워싱턴 DC/ Center/ 1-703-997-1622/ VA_Center yahoo.com
- 버지니아/ Mrs. Elaine Yu/ 1- 703 533 1787, 1-571-2787457/ eyu1217 gmail.com

\$ 워싱턴:

- 시애틀/ Mr. Hoang Nguyen/ 1-206-393-2852/ smch.seattle gmail.com

\$ 루에르토리코: Mr. Michael E. Jeffers/ 1-787-231-0878/ prcenter live.com

\$ 루에르토리코: Mrs. Sonia Alfaro Jaco/ 1-787-512-0286/ prcenter live.com

*아시아

• **아제르바이잔**/ 바쿠/ Mr. Ahmad Shahidov/ +994-50 205 91 91/ ahmad_shahidov hotmail.com

*포모사:

-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 msa.hinet.net
- 타이베이/ Mr. Lee, Ming-Chien/ 886-988134955/ newhalo gmail.com
- 미아오리/ Mr. Chang, Jung Yao/ 886-918917032/ smyaoyu gmail.com
- 미아오리/ Mrs. Su Hsueh, Fang-Hsiu/ 886-911-765211/ show0911765 yahoo.com,tw

*홍콩:

- 홍콩/ 센터/ 852-27495534
- 홍콩/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 yahoo.com

*인도네시아:

- 발리/ Center/ 62-361-231-040/ smch_bali yahoo.com
- 발리/ Mr. I Nyoman Widya/ 62-81558068909/ qomink2006 yahoo.com
- 자카르타/ Center/ 62-21-6319066/ smch-jkt dnet.net.id
- 자카르타/ Ms. Faye Yowargana/ 62-815-9982537/ tayebright gmail.com
- 말랑/ Mr. Rudy Setiawan/ 62-81-8330375/ rudy_zhang yahoo.com
- 메단/ Center/ 62-61-4514656/ smch_medan hotmail.com
- 메단/ Ms. Erika Wijaya Ng/ 62-85664065425/ universallove333 gmail.com
- 수라바야/ Center/ 62-31-3810166
- 수라바야/ Ms. Sri Riki Rejeki/ 62-818316181/ tabitha,hanna gmail.com
- 욕야카르타/ Mr. Udjang Harjanto/ 62-274-897161/ udjang.harjanto yahoo.com

* 이스라엘:

- 텔아비브/ Mrs. Talya Tal/972-50-8511720/ tal,talya gmail.com

*일본:

- 군마/ Ms. Rieko Yamazaki/ 81-90-4062-3205/ Vegan.pie gmail.com
- 도쿄/ Mrs. Hyakutake Toshiko/ 81-90-4923-1199/ binta k7,dion.ne.jp
- 도쿄/ Mrs. Yoshii Masae/ 81-90-6542-6922/ smchflute gmail.com
- 도쿄/ Mrs. Sato Rie/ 81-80-5654-1688/ riesato302 yahoo.co.jp
- 오사카/ 센터/ smchtoosaka gmail.com
- 오사카/ Mr. Le Khac Duong/ 81-90-6064-7469/ leduongjp yahoo.com
- 타고야/ 센터/ 81-90-3447-3117/ yumiko-emi hotmail.co.jp

* **요르단**/ Mr. Jafar Marwan Irshaidat/ 962 7 9511993/ estaphuam hotmail.com

*인도/

- 뭄바이/ Bipin Thosani/ 91-9833086680/ bipinthosani gmail.com

* 대한민국:

-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r121@yahoo.co.kr
-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 서울/ 강진태/ 011-263-3563/ samwoncokr@daum.net
- 서울/ 조순복/ 010-2494-3455/ a811439@hanmail.net
-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gmail.com
- 부산/ 변환웅/ 010-6657-9736/ byunwhan@gmail.com
- 부산/ 김홍련/ 016-571-5433/ rainhong1@hanmail.net
-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 대구/ 홍성태/ 011-530-5254/ hongst33@naver.com
- 대구/ 김정순/ 011-503-4302/ yubabba@hanmail.net
-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eon@yahoo.co.kr
- 대전/ 김선제/ 042-581-3718, 017-425-2390
-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 전주/ 최병선/ 011-9715-9394/ buda1996@hanmail.net
- 광주/ 센터/ 062-525-7607/ smgwangju@naver.com
- 광주/ 이민규/ 011-609-2243/ mglee2243@naver.com
- 광주/ 김경로/ 017-622-2374/ k2road@gmail.com
-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 인천/ 공미희/ 016-475-5303/ kmeehee2000@yahoo.co.kr
-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 안동/ 김신택/ 010-2507-3047/ ktjb@korea.com
- 울산/ 센터/ 052-224-4111
- 울산/ 유한주/ 010-5298-6625/ gkswn6625@hanmail.net
- 원주/ 센터/ 033-763-9358
- 원주/ 정광훈/ 019-369-2509/ funnynchong@hanmail.net
- 원주/ 김진숙/ 010-4715-2509/ chinskim@hanmail.net
-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 비엔티안/ Mr. Thongphet Sithammavong/ 85620-5700785/ tpsithammavong hotmail.com

* 마카오:

- 마카오/ 센터/ 853-28532231/ mcdivlove yahoo.com,hk
-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28532995

* 말레이시아:

- 알로르세타르/ Ms. Chin Chai Yean/ 60-19-4118298/ jellyyeen yahoo.com
- 조호르바루/ Mr. Wang Ah Sang/ 60-16-7220779/ wangahsang yahoo.com
-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 3904
- 쿠알라룸푸르/ Ms. Too Choon Lian/ 60-17-342 2238/ dottoo22 gmail.com
- 쿠알라룸푸르/ Ms. Chung Lee Woon/ 60-12-275 0196/ lwoon.chung yahoo.com
- 페낭/ Center/ 60-4-2285853/ pgsrmch streamyx.com
- 페낭/ Ms. Yeap Boey Khim/ 60-16-4563129/ oceanlove08 gmail.com
- 페라크/ Mr. Ling Leong Hor/ 6019-5572655/ lh.sitiawan gmail.com
- 페라크/ Ms. Chong Sin Foong/ 6012-5173312, 605-288-2342/ sinvege85 yahoo.com

* 몽골:

- 울란바토르/ Mrs. Gereltuya Gombosuren/ 976-99984038/ gaagneeg yahoo.com
- 울란바토르/ Mr. Bayarbal Rentsendorj/ 976-99774277/ quanyin_mongolia yahoo.com
- 코틀/ Mr. Chinsukh Uuter/ 976-99110446/ khotolcenter yahoo.com
- 코틀/ Ms. Tsenddorj Tserendorj/ 976-99370917/ tsendee_hutul yahoo.com

* **미얀마**: Ms. Thin Thin Lwin/ 95-42-24373/ 95-9-8550401/ thinthinlwin28 gmail.com

* 네팔:

- 카트만두/ Mr. Amit Karki/ 977-9841023500/ amitmanav yahoo.com

*필리핀:

- 마닐라/ Center/ 63-2 875 6609/ phi.loveocean.mnl gmail.com
- 마닐라/ Ms. Kim Thuy Bich Chau/ 63-917-258-7462/ chauthuykim yahoo.com

*** 싱가포르:**

- 싱가포르/ Center/ 65-6741-7001/ chinghai singnet.com.sg
- 싱가포르/ Mr. Foo Tack Ming/ 65-9137 1800/ ftnmwl64 singnet.com.sg

*** 스리랑카:**

- 콜롬보/ Mrs. K.M. Deepa Niroshinee/ 94-25-4906334/ samanthalknr gmail.com
- 발라치치아/ Mr. & Mrs. D.M.S. Bandara/ 0776210628/ samanthalknr yahoo.com

*** 태국:**

- 방콕/ Center/ 66-2-674-2690/ bkkc66 gmail.com
- 방콕/ Mrs. Wanpen Kanchanaprapin/ 66-81- 641-0312/ wanpensm gmail.com
- 방콕/ Mr. Chusak Osonprasop/ 66-081-4816500/ mummykat hotmail.com
- 방콕/ Mrs. Ratchanan Jintana/ 66-081-7515227/ bkkcpcr gmail.com
- 차양마이/ Mr. Li Yaolong/ 66-84616 2846/ yaolongli gmail.com
- 송클라/ Mrs. Roongliwa Angkarplaong/ 66-45-633-159, 66-84-891-3009

*** 아랍에미리트:**

- 아부다비/ Mr. Dhiraj D. Radadiya/ 971-50-3118499/ dradadiya yahoo.com

❖ 유럽

*** 오스트리아:**

- 빈/ 센터/ 43-676-6305498/ wiencenter gmail.com
- 빈/ 연락인 사무소/ 43-650-8420794/ ngocdany yahoo.com

*** 벨기에:**

- 브뤼셀/ Mrs. Bertrand Hélène/ 32-485-850609/ qybelgium yahoo.com

*** 불가리아:**

- 소피아/ Ms. Silvia Markova/ 359-899-171-950/ quanyinsolia gmail.com
- 플로브디브/ Ms. Radoslava Nikova/ 359 889 514 604/ quanyinplovdiv gmail.com

*** 크로아티아/ Ms. Dorotea Žic/ 385-98-378165/ tebudd gmail.com**

*** 체코:**

- 프라하/ Center/ 420-261-263-031/ czech-center spojenisbohem.cz
- 프라하/ Mr. Nguyen Tuan Dung/ 420-608124709/ czech-center spojenisbohem.cz

*** 핀란드:**

- 헬싱키/ Ms. Astrid Murumagi/ 358-50-596-2315/ helsinkicenter yahoo.com
- 헬싱키/ Mr. Tri Dung Tran/ 358-40-7542586/ dungparatitisi888 hotmail.com

*** 프랑스:**

- 알사스/ 센터/ Mr. HENRION Arnaud/ 33-3-89-77 0607/ allmightylove gmail.com
- 몽펠리에/ Mr. Sylvestrone Thomas/ 33-4-67650093/ ocean-amour wanadoo.fr
- 파리/ 센터/ 33-1-4300-6282
- 파리/ Mrs. JANICKA Ewa/ 33-6 14 82 75 85/ 33-142 08 58 93/ contactdivin gmail.com

*** 독일:**

- 베를린/ Mr. Jan Schwabe/ 49 - 0151- 211 42 607/ berlincenter quanyin.info
- 뒤스부르크/ Ms. Tran, Thi Hoang Mai/ 49-2162-8907108/ mai_tran70 yahoo.de
- 프라이부르크/ Ms. Elisabeth Muller/ 49-7634-2566/ elmueart surfeu.de
- 함부르크/ Ms. Dan Li/ 49-15229550177/ lidanli gmx.de
- 뮌헨/ Ms. Ley Lan, Rickens/ 49-17648248962, 49-40-79308103/ leyland rickens.org
- 뮌헨/ Mr. Nguyen, Thanh Ha/ 49-89-353098/ ha_nguyensm yahoo.de

*** 그리스:**

- 아테네/ Mr. John Makris/ 30-210 8660784/ johnmackris yahoo.co.uk

*** 헝가리:**

-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 gmail.com
- 부다페스트/ Mr.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 gmail.com
- 부다페스트/ Mrs. Aurelia Haprai/ 36-20-2400259/ doraur gmail.com

*** 아이슬란드/ Ms. Nguyen Thi Lien/ 354 - 5811962/ reykvjavik_center yahoo.com**

*** 이탈리아:**

- 페스카라/ Mrs. Bettina ADANK/ 39-333-617-8600/ bettina.adank gmail.com
- 캄포바소/ Mrs. Nancy Dong Giacomozzi/ 39-320-341-0380/ QuanYinBologna gmail.com

*** 아일랜드:**

- 더블린/ Mrs. Hsu, Hua-Chin/ 353-1-4865852/ smch_dublin yahoo.co.uk
- 더블린/ Ms. Kathleen Hogan/ 353-87-2259619/ dublinquanyin gmail.com

*** 노르웨이:**

-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 gmail.com

*** 폴란드:**

- 슈체친/ Ms. Joanna Likierska/ 48-608 662 682/ quanyin_asia interia.pl
- 바르샤바/ Mrs. Renata Lipińska/ 48-792 237 643/ renata.lipinska gmail.com

*** 포르투갈:**

- 리스본/ Mrs. Zenaide Alves Bontim/ 351 212216877/ r.crociqia yahoo.com.br

*** 루마니아:**

- 부차레스트/ 센터/ 358-443338893/ bucharestqy yahoo.com

*** 러시아:**

- 모스크바/ Mr. Oleg Dmitriev/ 79165763796/ moscowcenter mail.ru

*** 세르비아 :**

- 베오그라드/ Ms. Maja Mijatović/ 381642748820/ majazemun yahoo.com

*** 슬로바키아:**

- 질라나/ Mr. Roman Sulovec/ 421-903100216/ roman.sulovec spojenisbohom.sk

*** 슬로베니아:**

- 류블라나/ Mr. Damjan Kovačič/ 38640236433/ qy4ever yahoo.com
- 류블라나/ Center/ 386-1-518 25 42/ quanyin siol.net
- 류블라나/ Mr. Benjamin Boršček/ 38631464398/ forevershinelove gmail.com
- 마리보/ Mr. Igor Gaber/ 38641592120/ igorgaber mail386.com

*** 스페인:**

- 마드리드/ Mrs. Maria Jose Lobo Cardaba/ 34 675389788/ mjoselobo2004 yahoo.es
- 마드리드/ Mr. Joaquin Jose Pretel Lopez/ 34-646843489/ joprelo hotmail.com
-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 발렌시아/ Mrs. Wenqin Zhu/ 34-963301778, 34-695953889/ valenciachinghai yahoo.es
- 발렌시아/ Mr. Jose Luis Orduna Huertas/ 34-653941617/ joselorduna gmail.com

*** 스웨덴:**

- 영엘홀름/ Mrs. Helen Tielman/ 46-70-5719057/ qysouthsweden gmail.com
- 오레/ Ms. Viveka Widlund/ 46-63-38097, 46-70-6219906/ smchsweden yahoo.se
- 스톡홀름/ Ms. Elizabeth Dabrowska Hagman/ 46-76-84 80 978/ elizabeth.dhagman telia.com
- 옌살라/ Ms. Youwei Wang/ 46-73 789 6019/ youwei bredband.net

*** 스위스:**

- 제네바/ Mrs. Eva Gyurova/ 33 633 60 11 91/ gyurovi yahoo.com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 hotmail.com
- 암스테르담/ Mr. Roy Mannaar/ 31-653388671/ r.mannaar planet.nl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 임스워치/ Mr. Zamir Elahi/ 44-7843-352919/ zamir.light gmail.com
- 런던/ 센터/ 44-2088-419866/ londonukcentre googlemail.com
- 런던/ Ms. Simone Alves Moraes/ 44 7791 368 861/ simone1freelancer yahoo.co.uk
- 서리/ Ms. Leong Siew Yin/ 44-7760275088/ surrey.centre yahoo.co.uk

§ 스코틀랜드:

- 페이즐리/ Mr. Nelson Wilson/ 44-7799536861/ nelsonwilson hotmail.co.uk

❖ 오세아니아

*** 호주:**

- 애들레이드/ Ms. Hoa Thi Nguyen/ 618 - 82813428/ hoathinguyen y7mail.com
- 브리즈번/ Ms. Renata Halpin/ 61-412 775 678/ renatahalpin hotmail.com
- 브리즈번/ Ms. Jayita Belcourt/ 61-4-0976 1005/ jayita.amrita.com.au
- 캔버라/ Ms. Tieng thi Minh Tam/ 61-2-6100-6213/ tam.tieng gmail.com
- 멜버른/ 센터/ melbsmch aol.com
- 멜버른/ Ms. Jenny McCracken/ 61- 431 587 830/ jam2arts mac.com
- 멜버른/ Mr. Nguyen/ 61-422 113 775/ danhnguyen2475 yahoo.com.au
- 멜버른/ Ms. Wei Feng/ 61-414 839 533/ ww Wisdom gmail.com
- 미드노스코스트/ Mr. Eino Laidsaar/ 61-2 6550 4455/ goldenagecenter gmail.com
- 노던리버스/바이런베이/ Mr. and Mrs. Jonathan Swan/ 61-2 6624 7209/ byronbaycentre gmail.com

- 퍼스/ Ms. Yennhi Nguyen/ 61-8 9375 1484/ yennhi_nguyen yahoo.com
- 시드니/ Mrs. Kathy Divine/61-2- 9891 5609/ universalove22 yahoo.com.au
- 태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 6 22 33 11 8/ ray_dixon bigpond.com

*** 뉴질랜드:**

- 오클랜드/ Mrs. Elisa, McLean/ 64-9-482 3244/ elisa.xnet.co.nz
- 크라이스트처치/ Mrs. Juannan Wang/ 64-21-1624018/ shalina18 hotmail.com
- 해밀턴/ Mr. Dean Niki Powell/ 64-7-8566496/ hamiltoncp yahoo.co.nz
- 넬슨/ Mrs. Sheree Arden Beer/ 64-21-428034/ Sheree.Arden.Beer gmail.com
- 웰링턴/ Mrs. Aryan Tavakkoli/ 64-4-5270063/ aryan ihug.co.nz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와 MP4 (다운로드용)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과 음악은 책, DVD, CD로 전세계 각지에 유통될 뿐만 아니라 MP3(오디오), MP4(비디오)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http://www.EdenRules.com>)과 천상의 상점(<http://www.theCelestialShop.com>)을 방문하시면 목록 열람과 주요 내용 미리 보기가 가능하며,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MP3

No. 80 (중국어)

코스타리카 출가자들

1989. 6. 3. 코스타리카 강연

No. 210-B (중국어)

잠재의식의 선택과 진아

1992. 2. 19. 홍콩 강연

No. 266 (중국어)

미친 일본 승려

1992. 7. 7.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No. 526 (중국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선행

1996. 2. 20. 포모사 시후 국제 선사

No. 683 (중국어)

노인의 가치

1999. 12. 28. 태국 방콕 국제 선육

MP4

No. 731

한마음의 힘

2001. 12. 25. 미국 플로리다 센터 국제 성탄절 행사

No. 800

고귀한 야생

2007년 생활 비디오

MP3 & MP4

노래·시 낭송

No. 531, 532 (어울락어)

전생의 발자취

1996. 2. 23. 포모사 시후

No. 799 (영어, 중국어, 어울락어)

봄 노래 모음집

2007. 2. 24. 포모사 시후 음력설 경축 행사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93 (영어+14개 언어 자막)

단순하고 고귀한 삶

2007. 8. 21.~24. 파리 선삼

DVD 795 (영어+13개 언어 자막)

웃음은 유익한 것

2007. 8. 23. 파리 선삼

주요 내용: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개국한 이래로 스승님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스승님은 어떤 식으로 생활을 단순하게 유지하실까? 스승님이 철야 명상하시는 동안 깨어 있게 해주는 ‘인스턴트 차’의 비방을 알고 싶은가? 스승님은 당신의 독특한 식사법을 공개하시고, 수피교 스승인 바하우딘의 이야기도 해주신다. 또 다른 대화 시간에서 스승님은 기뻐하는 제자들과 농담을 나누시며 그들의 웃음보를 터뜨리신다.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웃음은 여러분에게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해 봐요!” 🌸



DVD 713 (영어+13개 언어 자막)

사랑이 스승이다

2001. 6. 5.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DVD 717 (영어+12개 언어 자막)

좋은 이웃의 미덕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주요 내용:

이 두 DVD에서 스승님은 동수들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의문을 풀어 주셨다. 예를 들면, 미덕은 깨달음과 연관이 있는가? 깨달음을 갈구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신에 활력을 주고 명상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음식이나 방법이 있는가? 스승님께 입문한 사람들은 우주에서 선택된 존재이며 가장 온 좋은 사람들이다. 스승님께서 이 특별한 ‘영적 기회 퍼센티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스승님은 동물들은 신과 끊임없이 연결되고, 또 언제라도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부러운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도 알려주신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




DVD 700 (영어+15개 언어 자막)

살아 있는 성인

2000. 5. 11. 한국 영동 국제 선육

주요 내용:

스승님은 전세계 연락인들을 만나셨다. 한자리에 모인 스승과 제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의 길에서 얻은 통찰력을 함께 나누고 우리 신심을 북돋우는 특별한 수행 체험도 이야기한다. 스승님은 깨달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락인들은 그 업무를 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두 배로 명상해야 한다고 상기시키신다. 또한 스승님은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세계 순회 강연 동안 겪었던 아슬아슬한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DVD 732 (중국어+14개 언어 자막)

긍정적인 생각은 큰 힘을 가져온다

2001. 12. 30. 미국 플로리다 센터 국제 성탄절 행사

주요 내용:

‘달이 삼매에 들었다’니 무슨 이야기일까? 과학자들이 물의 결정 구조를 연구한 실험에서 얻은 놀라운 발견은? 스승님은 과학적인 증거를 인용하며 “우리의 말과 생각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고양시켜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또한 그들을 끌어내려 불편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승이나 교사라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DVD 738 (영어+12개 언어 자막)

단순한 생활

2001. 4. 26.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주요 내용:

스승님은 나무 위에다 집 지을 생각을 어디에서 얻으셨을까? 스승님은 나무 위의 집에서 사는 단순한 생활의 즐거움을 말씀하시면서 현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신다. 단순한 삶은 우리를 좀더 자유롭고 활기있게 만든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나오는 한 여성과 앵무새에 관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스승님은 동물의 충명함을 찬탄하시며 인간의 무지를 안타까워하신다. 





DVD 781 (영어+13개 언어 자막)

항상 단순하고 요구 없는 마음을 유지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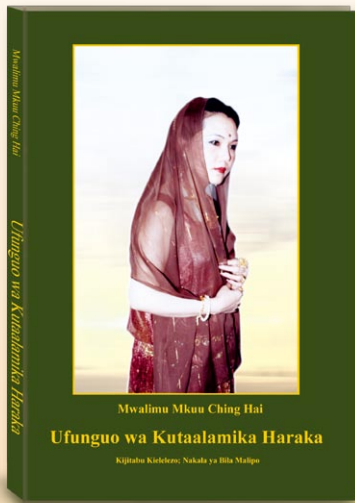
2007. 2. 20. 포모사 시후 국제 선오



주요 내용:

스승님은 자비롭지만 가난한 중국 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정직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그 서생은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반면 실통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원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 혹은 정치적 사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전쟁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어떤 엄중한 과보가 기다리고 있는가? 전쟁으로 인한 살생의 업은 국가에 어떤 업보를 미치는가?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견본책자



스와힐리어(Swahili)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로 5,5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한다. 스와힐리어는 탄자니아의 유일한 공용어이며, 케냐와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언어이다. 이 외에도 잠비아·말라위·부룬디·르완다·우간다·모잠비크·소말리아·오만·코모로스에서도 중요한 언어로 사용된다. 이에 칭하이 무상사의 『즉각 깨닫는 열쇠』 스와힐리어 견본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개인웹사이트나 포럼,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 다국어 웹사이트(<http://sb.Godsdirectcontact.net>)를 링크하셔도 됩니다.

서로 힘을 모으면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신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구에 있어 최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국어가 우리 다국어 목록에 없어서 견본책자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divine@Godsdirectcontact.org)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98 (중국어+15개 언어 자막)

동물들과 의사소통하는 최적의 방법

2007. 8. 24. 포모사 타이베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 화상회의

주요 내용:

사 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스승님은 연속해서 책을 출간하셨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에서 스승님은 이 날개 달린 친구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텔레파시로 동물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알려주신다. 이 밖에 스승님은 ‘동물들마다 각기 다른 선물을 가져온다’는 비밀에 대해서도 공개하신다.



DVD 800 (중국어+15개 언어 자막)

고귀한 야생

2007년

생활 비디오

주요 내용:

이 다큐멘터리는 더불어 사는 야생 동물 이웃의 순수하고 자연적인 삶을 볼 수 있는 창을 열어 준다.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그들의 고귀한 사랑은 매우 감동적이며 서로 간의 우정 또한 그렇다. 그들은 순수하고 신성한 힘을 통해 세상에 크나큰 이로움을 가져다준다. 물고기나 강가의 가리기들조차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준다.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천상의 상점(<http://www.theCelestialShop.com>)이나 에덴 동산(<http://www.EdenRules.com>)을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를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포모사 내 주문 시)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룬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고귀하고 사랑 많은 동물들의 조각상이 시후 센터를 빛낸다

승님의 지시에 따라 재능이 넘치는 꼬끼리 화가, 새끼 호랑이를 키우는 돼지 엄마, 주인을 구한 똑똑한 개 엔데(Ende) 등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동물들의 사진이 시후 센터 무지개 동산에 있는 돌 탁자에 새겨졌다. 이들의 일화는 우리에게 동물의 고귀한 품성과 사랑의 본보기를 따라 이 사랑을 모든 중생에게로 넓혀 나갈 것을 일깨워 준다.

